

생애 처음 맞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삶 곳곳에 드러냄으로 영혼구원의 전례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된다!

#### TGC, 앤디 크라우치가 권고하는 코로나시대 교회 리더 위한 긴급 제언 소개

1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사람을 이끄는 공동체 리더에게는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시기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다. 앤디 크라우치(Andy Crouch; TGC, Christianity Today 등 에디터로 활동하며, 팀 켈러와 '도시를 품는 센터처치'를 공저했다)가 기독교인 지도

자라면 모두 다 꼭 읽었으면 하는 아주 훌륭한 글을 썼다(A Guide for Christian Leaders in the Time of Coronavirus). 크라우치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은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다음의 근본적인 두 가지에 있어서 "가능성의 지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방식(norms)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에 관해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느낌을 주고도 남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조기에 구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전염병을 다룰 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는 언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적용할 때가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에너지를 불안과 공황이 아닌 사랑과 준비로 바꿔야 한다.

이 위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소규모 공동체를 강화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두려움을 줄이고 믿음을 키우며 자기 보호에서 타인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때만 가능하다.

지난 한 달 동안 크라우치는 대중에게 공개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및 공중 보건 정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독교 지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코로나 19에 관한 개요
2.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메시지 목록과 가장 해로운 메시지 목록
3.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대규모 또는 중간 규모의 교회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소그룹 모임에 관한 권고
4.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내리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미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크라우치가 권고하는 4가지 사항을 좀 더 부연한다.

1.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이러스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디에나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가정은 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은 일반 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무엇보다 노인인구와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한 집단에겐 아주 치명적이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많은 사람은 경미한 증상으로 끝나거나 심지어 증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칠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위험이 커진다. 감염됐는데도 증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증상자"는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약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주는 단순한 사망률을 넘어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건강관리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코로나19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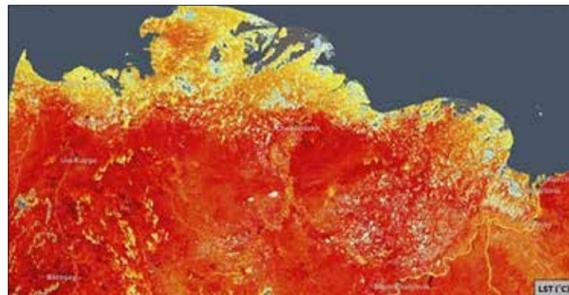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 앞에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과 전 세계적 경제난이 기다리고 있다.

2.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가능성의 지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심지어는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통하는 우리의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리더로서 중요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는 모두 잘 쉬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코페루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가 관측한 6월 25일 시베리아 지역 온도

###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 WP, 코로나와 싸우느라 놓치고 있는 4가지 지구적 재앙 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령 덕분에 악명 높은 인도 뭍바의 스모그가 사라지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의 수질이 물고기 떼가 보일 정도로 맑아졌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역설적인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 전 세계 언론들이 앞 다퉈 보도한 내용이다. 이를 놓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지구의 자정 작용이 일어났다는 등의 배경 분석이 뒤따랐다. 그런데 상식처럼 자리 잡은 이런 인식을 한순간에 뒤집는 발표가 나왔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농도가 417.1ppm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수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5월에 기록된 414.7ppm마저 웃도는 수치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1년 중 통상 5월에 농도가 가장 높다. 북반구에 여름이 시작돼 식물이 울창하게 자라나면 온실가스를 흡수해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멈추자 온실가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관들의 일관된 발표였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인간의 배출활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 지표면의 작용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Carbon dioxide levels hit highest mark in human history). 이 같은 유례없는 이산화탄소 농도의 고공행진으로 촉발된 지구 온난화의 재앙은 세계 각지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대확산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16면 팬더믹 시대의 선교... 이준성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KAPC 개혁장로회대학및신학대학원

## 2020학년도 Zoom여름특강안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학년도 봄학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과 혼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Zoom을 통하여 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Zoom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여름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동안 off-line에서는 연결이 어려웠던 한국의 총신과 합신의 저명한 교수들도 Zoom을 통하여 오히려 연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미국신학대학원의 1/3의 저렴한 학비로 수준높은 강사들의 Intensive 강의를 통해 목회 통찰력도 얻고, 목회학박사(D.Min)와 신학박사(Th.D)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총장 드림

**2020학년도 Zoom 여름특강 (Th.D, D.Min, M.Div, M.A)**

- 과목명 :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과 이민 목회"
- 담당교수 : 이승구 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 일시 : 2020년 7월 26-28일, 8월 9-11일, 오후 7시-9시30분
- 청강 환영 : (청강비 100불)

**저서**  
「교회란무엇인가」(나눔과섬김), 「개혁신학탐구」(하나), 「성령의위로와교회」(이레), 「기독교세계관이란무엇인가」(SFC), 「기독교세계관으로바라보는 21세기한국사회와교회」(SFC), 「한국교회가나아갈길」(SFC), 「전환기의개혁신학」(이레), 「성경신학과조직신학」(SFC 출판부), 「21세기개혁신학의방향」, 확장개정판(CCP) 등 20여권.

**연락처: 김동진학감 (626-675-8010)**  
KAPC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박사 이사장 양수철박사

● 발행인 칼럼 ●

### 기준이 사라진 시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처음 만난 곳은 1973년 초여름 여의도 광장에서였다. 물론 여러 상황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맞닿 수는 없었으나 회중석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를 볼 수 있었다.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그의 생애 마지막 전도집회가 열렸던 2005년 뉴욕에서였다. 그 때는 여의도 때보다 가까이서 보았지만 역시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지는 못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분분(紛紛)했으나 나는 들었다. 그가 복음을 매우 쉽고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을. 진리를 어려운 사상처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라.” “성경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은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가 외친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는 희망찬 소식이었다. 진리는 심오하지만 쉽다. 진리는 기준을 말한다.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모든 법들이 세워졌고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기준이 없는 곳엔 혼돈이 깃든다. 잘못된 기준은 모두를 슬프게 만든다. 자기만의 기준을 무리하게 모두에게 적용시키려 한다면 자기도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도 심히 괴롭다. 일이 기준인 사람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몇 대째 같은 일을 이어가는 가정도 적잖이 있다. 돈이 기준인 사람은 돈 따라 자리를 쉽게 옮긴다. 그의 연봉은 올라갈지 모르나 그의 일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 그 이유는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쉬우며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늘 기준으로 살다간 사람이 있다. 윤동주 시인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다. 기준 없이 살아간다는 가장 큰 문제다. 혼돈의 시대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은 자꾸 바뀌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감정이나 세상 여론이 기준이 되면 언젠가 낭패를 본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심오하고 쉬울 뿐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진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불가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영역에서 온갖 것을 등장시켜 진리에 반역(反逆)하여왔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결국 진리는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은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다. 진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지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요동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기준이 사라진 시대. 남아 있는 기준이라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기준.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 영원한 진리가 기준이다.

## 가벼운 관계 속 우연한 만남도 정신적 행복에 도움

BBC, 이안 레슬리(Ian Leslie) 기자 통해 사람들간 유대감의 유익과 영향 소개

나는 약 10년 동안 월요일 저녁을 아마추어 합창단 리허설을 하며 보냈다. 월요일은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요일이라, 종종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리허설이 끝날 무렵이면 활력이 되살아나곤 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동료들 중에는 몇 명을 빼고는 친한 친구들은 없었다. 대부분은 모르는 이들이었다. 짧게 대화하고 미소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삶에 활력을 주기에는 이 정도

로도 충분했다. 지금은 합창 연습이 없다. 아마 오랫동안 없을 것이라, 그럴기도 하다. 폐쇄 상태에서 애정의 결핍이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친절한 표정이나 일상적인 대화를 마주할 일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약한 유대가 줄어든 것이다(Why your 'weak-tie' friendships may mean more than you think).

1973년 스탠포드대학 사회학과의 마크 그레노베터 교수는 ‘약한 유대의 힘(The Strength of Weak Ties)’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사회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다. 이전까지 학자들은 개인의 행복이 주로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레노베터는 양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때, 자주 대화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들로 이뤄진 내적 서클과 간헐적으로 만나거나 우연히 만나는 지인들로 이루어진 외적 서클을 살펴보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레노베터는 이 범주

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집단 안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말했다. 친한 관계 바깥에 있는 기회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이유다.

#### 줄어드는 인간관계



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약한 유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어떤 기업들은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우연히 마주칠 수 있게끔 사무실을 설계한다. 스티브 잡스가 픽사 빌딩의 설계를 감독할 때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했다. 이 건물에는 모든 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야 하는 커다란 중앙 홀이 있다. 잡스

를 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여성이 나를 기억하고 서로 유대감을 쌓고 있다고 느껴졌. 기분이 좋더라고요.”

현재 예스24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샌드스트롬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들이 약한 유대에서 얼마나 행복을 얻는지를 조사했다. 그녀는 응답자들에게 며칠 동안 그들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큰 규모의 약한 유대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이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바리스타, 이웃, 요가수업의 회원 등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이들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 약한 유대는 자극인 동시에 불확실한 시기에 행동방법 보여줘 소셜 미디어가 약한 유대관계 간 대화 대신하는 한 가지 대안

들은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의 측면에서는 강한 유대보다는 약한 유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레노베터는 보스턴에 있는 282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약간 아는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84%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의 약한 유대를 통해 직업을 얻은 것이다. 친한 친구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이는 소수였다. 그레노베터는 “내가 많은

동료들이 자주 마주치며 커피도 마시며 바람 쐬기를 원했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이런 대화들이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한 만남  
약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은 정신적 행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길리언 샌드스트롬은 토론실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던 무렵, 두 개의 대학 건물을 오가며 핫도그 가게를 자주 지나쳤다. “저는 언제나 웃으며 핫도그 가게 직원에게 인사

많이 한 날에 더 큰 행복감과 소속감을 경험했던 것이다. 폐쇄는 이러한 만남을 더 드물게 만들고 있다. 약한 유대 상호작용은 우리가 밖에 있을 때, 특히 합창이나 자선 거타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주로 생겨난다. 2016년 심리학자들이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적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스포츠 팀이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삶의 의미나 안정감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6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식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0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항공대학(원): B.S. in Aviation Management/Flights,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경영대학(원):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리더십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국방대학원: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MBA), Ph.D. in Leadership  
상담대학원: M.A. in Counseling, Ph.D. Counseling Psychology  
교육대학원: M.A. in Education, M.A. in TESOL,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신학대학(원): B.A. in Theology, Master of Divinity, Doctor of Ministry, Ph.D. in Leadership  
음악,문화예술대학원: Master of Music, Doctor of Music, Doctor of Musical Arts, Ph.D. in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된다!

(1면에서 계속)

우리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두려움을 내쫓는 진정한 영적 권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몸에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기초가 되는 자세를 근거로 크라우치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 리더가 줄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메시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또는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특별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당신, 지금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기독교 리더가 줄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행동 방식을 바꾸는 건 다 사랑 때문이야." "어려움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라

3.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다음 규칙만 준수한다면 10명 미만의 모임은 여전히 가능하다:

△아픈 사람이 없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경우 △회의 전후에 모임 장소를 소독하는 경우 △모임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소 2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는 경우 △음식과 음료는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경우 △서로 다른 가구 구성원과 또 각자의 소지품 간에 가능한 한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4.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전염병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전염병이 초래할 단기적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겠지만, 과거의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둔 확신이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주가 이 우주의 구속주이자 운영자라는 믿음과 더불어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려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기독교인의 이런 소망은 단지 우주적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적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실로 놀라운 말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마귀의 권세로부터/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나의 머리 카락 하나라도/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주께

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 하십니다."

"이 위기가 주는 가장 큰 기회 중 하나는 이 문답을 다시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과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답을 가르치고, 이 문답의 내용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라우치는 기독교 리더십에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소망을 말해준다:

1.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2.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아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서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곳,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는 곳이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제자도,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 시론

## 두 인생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주간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이름을 들어보았을 법한 두 분의 마지막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으로 봉직했던 64세의 박원순 시장이고, 다른 한 분은 100세가 되신 한국 전쟁의 전설 백선엽 장군입니다. 박시장은 지금의 집권여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백장군은 과거 친일행적의 경력으로 인해 집권당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박시장은 전직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분의 장례식과 관련되어서도 여론은 두 개의 흐름으로 선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라는 정치적인 기류가 깔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민심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 정치판에 기대어 한 사람이 살아오며 가졌던 삶의 가치와 고뇌와 수고와 충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인들의 삶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그렇듯이 두 분의 걸음 역시 깨끗함과 추함이 공존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백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국 간도특설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항일운동을 하던 한국인들을 도발했던 과거로 인해 친일파의 명단에 오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그리고 그 이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수십년에 걸친 애국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공격을 받곤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박시장 역시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서울대학에서 제적되고 이후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인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부천시 성고문의 피해자였던 권인숙씨의 변호를 맡았던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회운동을 펼치며 자신이 생각하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 변호할 때마다 자신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부하고 싫어했던 성폭력 가해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서게 됨을 알고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어두웠던 삶의 부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깊은 양심의 고뇌를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삶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표내고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런 모든 일적인 것을 누르고 조용히 창조주 앞에서 자신이 가야 할 인고(忍苦)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닐까요! 백장군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 항일운동을 탄압했던 그 일을 언급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100세 삶의 길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 정치적 관점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인간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약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넘치도록 기도하며, 고인들이 사랑했던 국가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서 가슴으로 기도합니다.

살림.

thechoi82@yahoo.com

###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1면에서 계속)

#### 1. 펄펄 끓는 시베리아

대표적인 재앙은 북극해를 둘러싼 차가운 대륙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는 시베리아의 북위 67.5도에 위치한 베르호얀스크에서 지난 6월 20일 최고기온이 무려 섭씨 38도를 찍었다. 이즈음 시베리아 평균기온보다 17도나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소셜미디어에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뜨겁게 달궀진 대기가 시베리아에 가져온 재앙은 산불이다. 따뜻한 날씨로 시베리아의 눈과 얼음이 평소보다 빨리 녹고, 이로 인해 바짝 마른 식물과 토양에 산불이 쉽게 번지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방항공산림보호청은 소방대가 출동할 수 없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현재 115만 헥타르가 불타고 있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5배나 많은 규모다.

자연 발화한 산불은 겨울이 와서 기온이 떨어지면 저절로 꺼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겨울에는 불씨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기온이 올라가자 재발화 되는 현상이 목격됐다. 과학자들이 '좀비 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러시아 기상청은 지난겨울 시베리아의 기온이 기상관측이 시작된 130년 전 이래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산불로 대위된 대기가 눈과 얼음을 더욱 빨리 녹이고 건조해진 환경이 산불 발생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 지금 목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 2. 인도양 주변 대륙에 창궐

한 '메뚜기 떼'

또 다른 재앙은 지구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한 메뚜기 떼다. 케냐와 예멘 등 동아프리카에는 7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가 엄습해 농작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도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비상이 걸렸다. 메뚜기 떼는 지난 주말 수도 뉴델리의 위성도시 구루그람까지 덮쳤다. 인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자제령을 내렸고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메뚜기 떼 사진과 영상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메뚜기 떼는 5월에도 인도 서북부 지역을 휩쓸면서 27년 만에 최악의 피해를 안겼다.

과학자들은 메뚜기 떼의 창궐이 인도양의 바다온도가 높아진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인도양 상공의 대기온도가 높아져 주변대륙에 사이클론과 폭우를 몰고 오고 그 결과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다습하고 비옥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메뚜기 떼 역시 결국 지구 온난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메뚜기 떼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발생 지역을 초토화시킨다. 때문에 메뚜기 떼의 급

증은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등의 식량부족과 기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 3. 북중미 강타한 '고질라 먼지구름'

북중미 대륙에도 온난화의 재앙이 찾아들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서 발원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지난주 대서양을 가로질러 카리브해 나라들과 멕시코, 미국 남부까지 뒤덮었다.

'고질라 먼지구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먼지층이 도착한 나라들마다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호흡기 질환자들이 속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먼지 구름이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올해 북중미의 이례적인 먼지 구름 역시 지구 온난화로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심화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 4. 활활 타오르는 아마존 열대우림

브라질이 마주하고 있는 재앙은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Tel (718) 886-0074 (국문)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지은이 김성국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 886-4040, (323) 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 담임목사 청빙 공고

아리조나 피닉스에 2004년 설립된 초교파 교회인 사랑의 공동체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할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청빙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회자(M. Div. 학위 취득자)
  -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한 분
  - 미국 체류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한 분
  - 3년 이상의 이민 목회 경력에 있는 분(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 제출서류**
  - 영문 및 한글 이력서 각 1부
  - 본인 및 가족 소개서(최근 사진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 신앙 고백서, 목회 비전 또는 목회계획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 추천서 2부(추천인의 연락처 포함)
  -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링크(Video file, Website 또는 YouTube link)
- 보내일 곳**

Love Community Church  
사랑의 공동체교회 청빙위원회  
25418 N 7 th Ave  
Phoenix AZ 85085  
또는 email: hyokchun@yahoo.com
- 서류제출 마감일** 7월 31일 2020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청빙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hyokchun@yahoo.com /권역준 장로)로 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회에 관한 정보는 lccaz.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ccaz.com

사랑의 공동체교회 LOVE COMMUNITY CHURCH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속상하십니까?

살다보면 누구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속상하고 생활이 힘들어서 속상하고, 자녀가 방황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속상합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로 병원이 꽉 찼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마저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속이 무지 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 상하면 상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속이 상한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면, 남을 탓하고 분노합니다. 어렵게 임신한 아기를 유산하면 속이 상하고, 상실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배우자, 자녀, 직장, 건강들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

아서 속이 상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심하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속이 상한 사람은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성급하면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여 대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편법을 씁니다. 결국에는 무리수를 두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한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마구 토로하지도 마세요. 다윗은 자신의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시142:2). 속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할 때 우리도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USC대학 철학교수이자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교수는 "영적인 삶의 적이 서두름이다. 서두름을 가차 없이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고난 다음으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속상하십니까?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안주시는 것과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속이 상할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며 그 출애굽 사건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래는, 불임을 여인에게 내린 가장 큰 벌이라고 여겼던 고대 근동지방에서 오랜 불임으로 인해 온갖 저주와 상처를 겪어내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10년을 기다렸지만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한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

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얻은 아들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은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속이 상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래처럼 살다보면 속상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십니다.

속상하는 상황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일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뉴욕 사랑의동산교회)



지금쯤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시대적인 징조를 눈여겨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주님의 예언을 마태복음 24장 4-14절,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자연적인 징조와, 사회적 징조, 그리고 영적인 징조'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 1. 먼저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자연적인 징조 중 하나는 큰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11절을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과 기근은 늘 있어왔지만,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0세기의 지진의 횡수는 지난 세기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도에 16회였던 지진이 2017년도에는 223회가 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인구의 70% 가량은 마음껏 먹지 못해 배고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염병이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소나 돼지 닭 등 가축을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듯이 사육하기 때문에 동물의 면역력이 약해져 쉽게 질병에 걸리며, 우리가 고통 받는 전염병의 70%가량이 동물에게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금방 전 세계로 퍼져 미국에서만 확진자 수가 3백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갈수록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처음 겪는 이 역병은 우리의 일상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경제와 사회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다민족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고개를 들고 있으므로 동양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인들의 잠재적 속에는 황인종에 대한 피해의식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기마부대가 중국, 러시아를 휩쓸고 유럽으로 들어가 폴란드, 헝가리, 독일까지

쳐들어온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몽골군이 유럽의 한 도시를 점령하면 모든 주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므로 황색인들은 유럽의 백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인구의 1/3 이상을 몰살시킨 페스트는 몽골군이 설치류를 통해 옮겼다는 설이 퍼지면서 유럽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강한 반감과 피해의식이 깊어진 것입니다. 게르만족을 정복하고 서로마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훈족도 중앙아시아에서 살았던 동양인이었고, 미국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도 동양의 일본인이었습니다. 이

번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도 동양의 중국이며, 선거를 의식한 지도자의 무책임한 발언은 인종차별을 부추겨 황해(黃海)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을 자극하므로 우리 한국인들도 곳곳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외에도 수많은 전염병으로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하는데 종말의 징조입니다.

또한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해에서 일어난 해일이 순식간에 23만 명을 희생시켰고,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의 해일은 3만 여명을 휩쓸어 갔으며, 주변에 있는 핵 발전소를 폭발시켜 주변나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극지방의 만년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북극권의 한 마을의 기온이 100도(F)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지구온난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산불 또한 매우 위협적입니다. 아마존의 산불로 약 4만km2가 불에 탔고, 작년 9월에 시작된 호주의 산불은 6개월여 동안 무려 18만6천km2, 그러니까 한반도의 약 85%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살기 힘든 위험한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 2. 그리고 사회적 징조가 있습니다.

사회적 징조 가운데 첫째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임"(마24:7).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급격히 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B.A. 소로킨' 교수의 집계에 의하면 20세기 이전 2500년 간 지구상에서 약 2500여 회의 전쟁과 내전이 있었는데,

20세기 이후에는 이보다 8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근세에 많은 민족과 민족 간에 대립하면서 신생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썩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자연히 아나니"(눅21:9). 무화과나무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양자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인도 등 120여 개가 넘는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50%나 되는 숫자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에 썩이 난 것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징조로는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24:12). 40-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했고, 젊은이는 어른을, 제자는 선생님을 공경했으며, 교인들은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라 인정하며 존경했습니다. 돈이나 쾌락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우정과 의리를 대단히 귀한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

역하고, 젊은이가 어른을 무시하며, 제자가 선생에게 대들고,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까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궤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느 것보다 더 하며..."(딤후 3:1-4).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징조로는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 노아 때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도덕의 타락이 소돔 성을 불로 망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중 결정적인 것은 바로 동성애였음을 유다서 1:7절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고, 약속의 땅 낙원 천국으로 들어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받고, 죄를 즐기며 살아가도 사랑의 하나님은 눈감아 주신다는 거짓선지자들은 죄와 회개에는 침묵하고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거짓구원의 평안 속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으로 미주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 복음은 온 세계를 돌아 발원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통계사무국은 최근 이스라엘에 158,000여명의 기독교인이 있

현재의 세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주님은 강림하실 것입니다. 평시에 복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산으로, 동굴로 숨을 곳을 찾아 뛰어다니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 고 외칠 것이고, 세상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서운 환난에 휩싸일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에게서 갑자기 태아가 사라지고,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이 없어지므로 여인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다가 혼절할 것이고, 이마에 성령의 인을 맞은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주님이 강림하신 공중으로 들려올라갈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가라지와 쭈정으로 믿을 없이 살았던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선지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이 억울하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싼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혼합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용하며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요3:5, 행2:38),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마7:21), 그리고 오직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히12:14).

그러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마24:42). 잠에서 깨어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은 많습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영광을 좇아 사는 자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생활의 염려에 매여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을 소유한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도 영적 잠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생활을 바꾸지 않는 자도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당장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erimkang@hotmail.com

# 시대의 징조를 보라

## 마태복음 24장 4-14절, 누가복음 21장

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시대이며 함부로 말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 3. 또한 영적인 징조를 살펴 보겠습니다.

영적 징조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미혹시키는 거짓선지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 24: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서 '미혹한다'(플라나오)는 말은 '속인이다, 길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네 번이나 거짓선지자의 미혹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합니다. 그들은 천국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부와 명예로 만든 황금십자가를 목에 걸고 날마다 즐기며 살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으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끝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나팔소리가 당장 들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흔들며 지구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길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네 번이나 거짓선지자의 미혹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합니다. 그들은 천국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부와 명예로 만든 황금십자가를 목에 걸고 날마다 즐기며 살라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코로나로 법석을 떠는

자연계시의 한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 양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곳은 신비로운 치유의 장소로 소문이 나 있었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믿고 수많은 각종 병 환자들이 연못가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매일 매일이 아우성이다.

성경에 무슨 이런 어릴 적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깊은 산속 연못에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는 산신령 할아버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가?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운데 '자연계시'라는 영역이 있다. 인공 핫스프링의 좋은 유허온천물에 들어가면 믿음에 상관없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남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 한다. 그래서 병원이 많지 않던 예전에는 온천지역 근처에 물리치료소 같은 시설들이 있어서 팔과 다리를 잘 못쓰던 사람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완치되는 일들이 많았

그 결과 사람들은 원망과 상처를 부둥켜안고 살아갈 따름이다. 참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것이 없다.

원망과 상처

예수님은 그들 각색 병든자들 중 발병한지 38년된 병자를 주목하고 찾아가셔서 초점을 맞춘다.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한 영혼이다. 한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편애를 말함이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오직 한 영혼만 존재하는 것처럼 유일무이한 관심을 주시며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만남의 기적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 드디어 주님이 물으신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38년된 병자의 대답은 모두가 기대하던 답을 내어 놓지 않는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들은 원망과 불평이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주변사람들을 원망한다. 같이 행장에 모여 평소 말동무

없는, 참 회복자이신 주님 앞에서도 남을 탓하며 원망을 쏟아내는 그를 보면서 영육 간에 심한 중증임을 확인하게 된다.

질병의 고통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사단의 역사가 엄중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과연 38년된 병자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게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의 질병에도 생명을 부지하였고, 나이에 대한 소망의 싹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38년의 긴 투병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왔을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긴병에 돕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는지라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38년 증명하지 않는가? 더불어 물이 동하기까지 함께 질병의 고통을 나누던 환우들도, 그의 원망의 말을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동병상련의 아픔들을 가진 이들이 아니겠는가?

그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의 믿음 없음과 삶의 고난으로 폭격된 속사람의 영적상

나를 찾아와 주셔서, 상처난 마음들을 어루만지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영육간 금지산자와 같은 우리를 일컫어 세우시고, 자신의 짐을 들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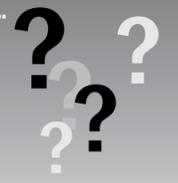
온전한 변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38년된 병자는 고통의 깊이만큼 쉽게 변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찾아와 짐을 들고 걸어가는 율법조항의 위법한 일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본다. 더불어 자신을 낮게 한 그이가 누구인지 말하지 못한다. 그 마음이 아직 믿음으로 정리정돈되지 못한 모습이다. 입술로는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병이 나은 후 유대인 남자들이 당연히 지킬 율법규례를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는 예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70이 갓 넘은 교회의 권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암에 한번 걸려 회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건강을 위해 정기 검진도 자주하고 하루 한 시간 걷기 등을 꾸준히 했는데 최근에 다시 암이 발견되어 다음 주부터 키모를 받게 됩니다. 다시 찾아온 고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디나에서 전 권사

**A:** 권사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생명과 미래 등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첫 번째 암 회복처럼 두 번째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회복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어려운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한창 연주 중에 갑자기 그의 바이올린 줄 하나가 "푹"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나머지 세 줄로 멋지게 연주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줄 두 개가 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의 남은 줄로 연주를 마쳤고 청중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휘자에게 다시 앙코르 곡 한곡을 더 연주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에 청중들은 "한 줄로, 한 줄로"라고 외쳤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한 줄만 가지고도 잘 대응하여 오히려 더 멋진 연주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 어려운 상황에도 의연이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유연성(Flexibility)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앙인은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이

생명과 미래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라

곧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 풀러톤의 Evangelical Free Church를 목회하며 영향력있던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인생을 살면서 10%는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봄이 오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도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운 장애물과 환난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내편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90%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안수집사였고 CPA였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믿음이 좋고 기도와 전도에도 열심이셨던 분입니다. 한번은 얼굴이 평소와 약간 검게 보인다고 부인이 말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였습니다. 간암일지 모른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UC Harbor 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심방차 찾아가니 부인이 초죽음이 되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간암말기라는 절망적인 판정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 라는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왔습니다. 생명과 미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쫓겨온 아이의 고통하고 평온함(시132:2)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암에 걸렸다고 환자처럼 살지 말고 과거처럼 똑같이 평상의 삶을 사십시오.

재로 그렇게 살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길, 주님의 집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주님이 가시는 길 그곳에 나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주님이 머무시는 집에 나도 함께 있어야 한다. 주님은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시던 길에 병자를 만난 것이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가 있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병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그가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인가? 병이 나은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방만한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은 상천하지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기에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동일한 음담패설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운

는 무엇보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정해두신 길, 주님이 머무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데리시는 곳, 주의 집, 주의 교회, 주의 성전,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서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삶의 참된 변화와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코로나 위기 속에 더욱이 숫자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싸구려 복음과 세속 목자들의 나팔소리가 더욱 울려 퍼질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만날 다른 길은 없다. 다시금 교회는 최고의 방역 속에 최선의 예배드림을 통해 인생의 회복을 맛보는 기적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베데스다에만 머물면 안 된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집, 성전에 머물러야 한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주님이 가시는 길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세상의 한계, 온전한 회복-

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에 관계없이 일반은총의 빛을 따라 열심을 가진 이들을 이렇게 도우신다. 깊은 산 곳곳마다 산삼도 심어주시고, 옹한 약초뿌리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묘막측한 모습의 한 부분이다.

양문 곁 베데스다는 더 이상 세상의술에 기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레카 기적의 장소이다. 기쁨의 감각과 소망이 예비된 축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잔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기적의 감각이 존재하지만 엄연히 세상에 속한 기적이라는 한계 속에 주님이 드러내신 많은 기적과는 차이가 있다. 세상이 주는 기적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으며 세상의 질서 안에 부속된다.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낚는다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환자들보다 좀 더 힘 있는 사람, 주변의 도움이 있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눈치라도 빠른 사람이 혜택을 먼저 누리게 되는 그런 곳이다.

저들이 모인 곳은 각색 병자들 간의 경쟁과 원망 소위가 드러나는데, 이것은 죄성을 극복하는 믿음이 부재한 자연계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연약한 사람은 차별과 경쟁에서 밀려난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평소에는 사람이 좋다가도, 물이 동하는 이이 부모형제라도 밝고 지나가는 경쟁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궁극적인 선을 향해 나아가지만, 매순간 숨이 막힐 듯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목격한다.

라도 하며 서로 의지가 되어왔던 이웃 사람들마저 원망한다.

사람의 말에는 그의 마음이 품은 것들이 드러난다. 영적상태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의 품격과 존귀함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감사한 좋은 일을 만나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다. 축하의 말을 들어도 무신하고 시큰둥하게 답을 한다. 축하의 말을 건네던 사람마저 무안해질 정도로 상대하는 것을 본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 삶이 어렵고 힘들 것임에도 늘 밝고 긍정적이며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본다. 누구나가 그를 좋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무엇의 문제인가? 그 마음을 지킬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의 상처가운데, 원망의 말과 사랑을 기본 나쁘게 만드는 말을 쏟아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 결국 그가 가진 믿음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다. 다윗을 보라. 광야의 역을하고 힘든 형편들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찬송과 감사의 시가 흘러나왔다. 그가 고통 중에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입술의 열매가 그 자신의 영적상태, 영혼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병과 믿음

38년간 앓아온 육체의 질병들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속 깊은 마음의 병중인 원망과 불평이 지배하는 심령이 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본다. 베데스다와 비교할 수

태를 설명한다. 그는 입술의 말로, 주변과 이웃을 원망함으로 스스로의 품격을 전락시켜버렸다. 믿음의 부재가 말과 자신의 삶을 흐트러뜨림을 확인한다. 인생의 존귀함을 아름답고 복된 믿음에서 시작된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속사람을 바꾸어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실현한다. 원망과 불평은 영혼의 독버섯과 같다. 사랑의 존귀한 영혼이 독버섯과 함께 성장과 삶의 회복과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다.

주님과 만남

믿음 안에서 영혼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대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 그렇게 좋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동안 믿고도 왜 변화가 없는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변화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38년된 병자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 '주여'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덮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한없는 크신 사랑이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었고, 병이 너무나 오래되어 전혀 기망이 없는 그를, 사람에 대해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던 그를, 주님을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셨다. 일어나 스스로 그 짐을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고쳐주셨다. 엄청난 특혜를 입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다. 우리 쪽에서 전혀 공로를 찾을 수 없는, 죄인 되어 약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런

를 다시 만났다. 성전에서 주님은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육신의 마음을 넘어서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삶의 온전한 변화를 드러낸다. 유대인들이 그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자신을 낮게 한 이가 예수라고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본다. 제대로 예수를 만난 것이다.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성전에 나아가지 않아도, 교회생활과 봉사생활을 하지 않아도, 신학이론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수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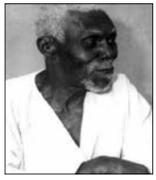
사랑한다는 부부가 서로의 안부를 정중히 여쭙지만 할 뿐 삶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드릴지 언정 담배는 못 끊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말년에 불과하다. 이름 뒤에 붙은 '목사 장로 권사 등' 좋은 타이틀을 다 가졌는데, 삶은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흉내 내는 신앙, 처세술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때문은 아닐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비록 어느 정도의 양육과정은 필요로 하겠지만, 결코 몇십년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음담패설과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채운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서아프리카의 세누포(SENULO)

다양한 세누포 종족들이 아프리카의 중부 볼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코트디부아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일부가 포함된다. 그들은 37개 독특한 언어의 분류에 따라 북부, 중앙, 남부의 3개 종족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 세누포 부족들은 37개 이상의 방언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북부 세누포족은 오디엔나와 푸루 주변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케네두구 지역의 종족들과 혼인관



계를 맺음으로써 문화적으로 혼합된 종족이다. 케네두구 왕국은 사카소 수도로 1800년대에 세워졌다.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종교였지만 이 종교는 상류층과 족장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파됐다. 중부 세누포족은 사모고, 로베, 투르카, 투사인과 보보-디올라 부족들이 문화적으로 혼합돼 있다. 그들은 사카소와 그들 지역에 살았던 보보-디올라족의 영향을 함께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1700년대에 디올라 무역상들은 남부 세누포족 가운데 정착했다. 그들은 세누포족을 누르고 자신들의 통치자를 세웠다. 콩이 그들의 이슬람 수도가 됐지만 이슬람은 또다시 상류층에게만 제한됐다.

#### 삶의 모습

세누포족의 대부분은 자경자급하는 농민들이다. 그들은 밭벼와 양, 땅콩, 조를 그 지역에 널리 재배하며 경작하면서 재능있는 농사꾼으로 부러움을 받고 있다. 남성들이 명예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삼발리(sambali)라고 하는 '참피운 경작'자가 되는 것이다. 삼발리는 일생 동안 존경을 받으며 마을 전체와 주변지역 앞에 자기 주택을 짓게 되는 명예를 누린다. 세누포 사회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라는 개념이다. 세누포족은 자기 자신을 한 집단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갖고자 한다. "개인"이라는 개념은 단지 제한된 환경에서만 나타나며 어떤 인간도 홀로 살 수 없다. 그 대신 각 사람은 대가족의 일원, 마을의 구성원, 형제 등으로 여겨진다. 모든 사람은 무리지어 식

사하고 같은 집에서 피먹는다. 논밭은 함께 경작하고 식량은 함께 보관하며 각 가족은 마을에 헌신한다. 한 세누포인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 내의 다른 사람들과 관련돼있음을 항상 인식한다. 세누포족에겐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항상 앞선다. 부족 전체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과 같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한다. 세누포족의 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남성비밀회"라는 것인데 포로(po)라고 알려져 있다. 포로에서는 남자들에게 공동체의 지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서 지혜를 얻고 책임감을 받아들이며 또한 권력을 얻는다. 이것은 아이들이 주변문화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시작하며 연습과 봉사를 점점 강화하게 된다. 아이들이 의식적인 죽음을 치루고 "완성된 남자"로 마지막 졸업하면서 끝이 난다. 극적인 예식과 무용, 연

극 등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남자가 약30세에 달하면 성인 입문식은 완성되고 그는 어른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는 장로중 한 사람이 돼 족장의 주요 결정에 지분하게 된다. 포로가 모이는 구역은 세누포 촌락 바깥쪽에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 안에 숨겨져 있다. 이 거룩한 숲은 학교, 모임장소, 예배 장소로 사용된다. 제2차대전 이후 세누포의 지역은 점점 상업화되고 도시화됐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주해 돈 벌 기회가 생겼다. 이것은 세누포의 아버지들이 과거 자기 아들에게 가졌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들 사회에서 상부상조하던 특성의 중요성도 미약해졌다. 불행히도 이러한 두 영역의 약화로 인해 이슬람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의 흐름으로 새어 들어 오기 시작하고 있다.

세누포족의 약1/4은 무슬림이며 그 수치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인구는 전통적인 민족 종교를 숭배하고 있다. 다양한 신들과 조상의 영혼, 숲의 정령에 대한 믿음은 마법, 요술, 신비신과 함께 모두 대다수 세누포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세누포족 대부분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교단체의 대상이 돼 있지만, 타엘라벨레족에게는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기독교인 선교사가 하나도 없다. 종족들 중 단 4개만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 일부를 갖고 있다. 기독교방송은 현재 13개의 부족 중 단 4개 가운데서 방송되고 있다. 오늘날 세누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누포족은 이슬람교로 전부가 개종하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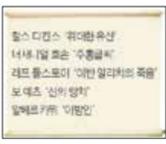
신앙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신앙인이 꼭 읽어야 할 소설 5권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 레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이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할 소설로 선정됐다.



미국 복음연합(TGC·The Gospel Coalition)은 최근 홈페이지에 '기독교인이 꼭 읽어야 할 소설 5권'을 소개했다. 추천작은 기독교와 문화 관련 저작을 다수 펴낸 리랜드 라이큰 미 휘튼대 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선정했다. 첫 번째 추천작은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성실 공물 충실 자족 등의 미덕을 소개한다. 라이큰 교수는 "재밌게 읽다 보면 어느새 교화되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호손의 '주홍글씨'다. 미국 문학의 걸작이자 기독교 고전인 이 책은 죄책감과 용서를 문학적으로 다룬다. 호손은 딘스데일 목사와 불륜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어린 딸과 살아가는 주인공 헤스터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당대 미국의 청교도적 가치관과 낭만적 세계관을 섬세히 표현한다. 라이큰 교수는 "딘스데일 목사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한 행동은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 중 하나"라고 평했다. 세 번째는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법조인 이반 일리치가 살던 사회는 천박한 가치가 판치는데,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네 번째는 스웨덴 루터교 신학자 보 예즈가 쓴 '신의 망치'다. 목사 3명의 영적 순례를 다룬다. 마지막은 카뮈의 '이방인'이다. 라이큰 교수는 "실존주의의 교과서 같은 책이다.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가치관을 기독교인이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 추천한다"고 밝혔다.

#### 美NSC, 백신업 추모성명...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백신업 장군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NSC는 12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1950년대 공산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는 데 모든 것을 바친 백신업과 다른 영웅들 덕분에 한국은 오늘날 번영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다"면서 "99세에 타계한 백 장군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남긴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NSC는 백 장군의 영문 회고록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전사

회고록'의 표지 사진도 올렸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백 장군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존경과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1996-1999년 재임한 존 킬러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은 영웅, 외교관, 애국자였고 내 친구이기도 했다"면서 "한국에서 복무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내게 너무나 중요했던 분을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6-2008년 재임한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을 미국 건국의 영웅 조지 워싱턴과 비교하면서 "백 장군은 한국군의 아버지다. 전술과 작전에 매우 능했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다"고 회고했다.

2011-2013년 재임한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언제나 그의 통찰력과 현명한 조언자 역할을 존경했다. 백 장군은 자유와 희생의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는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고 말했다.

2016-2018년 재임한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의 타계는 한·미동맹에 큰 손실"이라면서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졌다"고 애도했다.

#### 성가 대신 시진핑 C-방역 찬양 지시받은 중국 교회

5개월, 147일 만에 문을 연 국립 교회. 한 교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가를 부르는 대신 정부는 우리에게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싸움에서 시 주석의 승리를 찬양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교회 재개관을 위해서는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른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을 찬양하라고 요구받은 것이다.



이는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중국 내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잡지인 '비터 윈터'가 폭로한 내용이다. 순허 후이쥬구 카이펑시의 리시팅 천주교회 소속 신부와 교인 20여명은 지난달 14일 성당을 다시 열며 이같은 강요를 받았다. 곁에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감시가 있었다. 신부는 "우리는 전염병 이후 오히려 장엄하게 국기를 게양한다"면서 "시 주석의 영도 아래 모두 협력한 성과"라고 말해야만 했다.

허난성과 저장성의 기독교협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성도들에게 중국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취안난교회 목사는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주의 시스템과 공산당에 대한 사

랑을 고취하라고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한 당국자는 "지금부터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야한다"면서 "안 그러면 교회가 폐쇄되고, 지도자는 해고될 것"이라고 털어놨다.

마르코 레스핀터 비터 윈터 편집국장은 폭스 뉴스에 "이는 중국공산당의 중국화 시도의 또 다른 사례"라며 "모든 것이 진짜 중국식이 돼야 한다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신성모독을 강요하는 꼴이 되더라도 모두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꼭두각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교회에 기독교 상징물을 없애고 시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하게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레스핀터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를 선전 등 여러 면으로 활용해왔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권이 코로나19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연시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은 데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유능했다는 거짓말을 전 세계에 알렸고, 중국식 모델을 팔려고 노력했다"면서 "그 와중에 종교와 소수 민족 집단은 억압했다"고 덧붙였다.

#### 백신 비판론 공포...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백신 개발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백신이 나온다 해도 장기면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정착해 주기적으로 재발병하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감염병 전문가 아르노 폰타네 파스퇴르연구소 교수는 12일 BFMTV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까지 100%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전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일부 효과가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코로나19를 종식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폰타네 교수는 이어 "백신을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린다"며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미 국립보건원(NIH) 주최 온라인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정 기간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흥여 백신처럼 평생면역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 감소로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슈바빙클리닉이 지난 1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9명을 대상으로 최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에게서 중화항체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뜻한다.

뮌헨슈바빙클리닉의 클레멘스 벤트너 선임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회복 환자들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것이 장기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향후 유심히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비 풀린 코로나...전세계 23만명 확진

전 세계에서 12일 하루 동안 23만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속수무책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3만37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23만 219명의 확진 기록이 이를 만에 깨졌다. 이로써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55만명, 사망자는 56만명을 넘어섰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이날 하루 6만명 이상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4분의 1은 플로리다주(1만5300여명)에서 나왔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 4월 뉴욕주에서 하루 1만 20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기록을 플로리다주가 깬 것이다. 플로리다주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건 양성 판정 비율이 19.6%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10명을 검사하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18개주에서 최근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던 일이다. CNN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인구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분석업체 큐빅이 미국 내 10개 도시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독립기념일 연휴 때 방문자가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때보다 많았다. 외출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다.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백악관은 감염병 권위자로 인정받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을 백악관에서 사실상 퇴출했다고 WP가 보도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멤버인 파우치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지난달 초가 마지막이고, 코로나19 관련 보건지침을 전하는 방송 활동도 백악관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WP는 대통령 보고 일정 없이 진행되는 건 해입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파우치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센 지역을 다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을 학기 개교 주장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에 이어 누적 확진자 수 세계 2위인 브라질에선 11일 기준 신규 환자가 닷새만에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확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도시 간 이동이 늘었기 때문이다.

## 가벼운 관계 속 우연한...

(2면에서 계속)

지금은 클럽과 단체에서 행사 개최가 금지됐고, 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변화한 거리를 거닐거나 카페나 술집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어졌다. 이는 부담이 적은 대화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샌드스트롬은 "잘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감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더 힘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약한 유대 관계에서 하는 대화는 가볍고 부담이 적습니다."

약한 유대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는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샌드스트롬은 매주 가족과 화상대화를 나누는 동료들 예로 들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현재 아무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레노베티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약한 유대관계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약한 유대는 자극이자, 동시에 불확실한 시기에 행동방향을 보여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하게 대화를 하면서, 폐쇄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마다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폐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약한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를 뒤흔어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의 의미는 크다. 샌드스트롬은 "우리는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설 미디어가 약한 유대관계에서 하는 대화를 대신하

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설 미디어가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약한 유대관계의 사람들과 하는 상호작용을 강한 유대의 사람들과 해보는 것도 추천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다. 샌드스트롬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 관

심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팬데믹이 지나가고 난 후, 우리는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친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01. 광림대(1884-1971)

광림대(鄭林大)는 1884년 9월에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광대종이고 호는 쾌설당(快雪堂)이다. 그는 처남 안태훈 진사의 아들이자 5살 위인 처조카 안중근과 자주 만나 애국을 눈을 뗐다.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1909년 평북 선천에 있던 신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교사 근무 중이던 1911년 11월 그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독주, 음악대의 음악이 있었다. 그리고 박선목사의 찬사가 있었다. 이후 친구가 이어졌다. 1915년 5월 임 추가 일제에 의해 감옥에서 고생하던 여독으로 병을 얻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고, 김기만의 부인이 3주간 동안 치료하였으니 광림대의 심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



광림대

이후 가족은 한국에 남겨 두고 홀로 중국으로 떠나 1913년 4월 몽골리아 선편으로 상해에서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해 9월 20일에 유학차 도미하였으나 망명의 길이었다. 35달러로 미주에서 생활했던 그의 미국 이름은 로웰(Lowell)이었다. 1913년 11월, 상향 국민회 지방회 가입 명단에 처음 그의 이름을 뒀다. 그런데 1914년 5월에 클라몬트로 이주했고, 그달에 엠펠드로 이동하면서 1915년 새 학기에 클라몬트 한인양성소 국한문 교사로 피선되었다.

#### 클라몬트 한인장로교회 목사

1915년 4월에 엠펠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엠펠드와 클라몬트에 있던 동포들이 주선하여 엠펠드의 서양 부인 스트왓을 위한 대연을 베풀었을 때 광림대가 목사로 소개되었다. 그가 국한문 교사를 하였던 기간에 클라몬트 한인양성소에 체류하면서 이곳에 있던 한인장로교회 목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년간 한인 목사로 사역했던 민찬호 목사에 이어 본 교회의 안수 받지 않은 목사였는데 사실상 그는 전도사였다. 그런데 민찬호가 다년간 맡았던 학생양성소 새 감독은 강영대였다. 이날 대연의 순서를 소개하던 일동의 할렐루야 찬미로 개회한 후 연설과 음악과 찬사가 있었다. 연설 담당자는 알리슨, 사전트, 헌트, 스토운, 광림대, 이종희였다. 음악 순서자는 민찬호 목사 부인, 강영성, 이요섭, 임보배의 독창, 강영각의 나팔 독주, 팩슨, 쿡, 스트왓, 리의 4인 병창, 팜어 부인의 바이올린

런데 그달에 이석원이 감자농사에 실패한 후 마차를 구매하여 채소 소매상을 시작했으니 광림대의 기도제목이 하나 더 늘어났을 것이다. 1915년 6월 5일 오후 7시30분에 클라몬트 한인양성소에서 금번 학기에 졸업한 본 양성소 학생 이원석과 이순복을 위하여 내외빈객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졸업생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광림대는 사회자로 활동하면서 본 양성소 장래 정황에 관해서 소개했다. 전체 질차는 찬미와 기도 후 광림대의 개회사, 회중의 국가, 박선과 지성진과 패던과 스트왓 부인 등 4인의 축사, 미국여학생 단체의 찬가, 길터어의 연설, 임보배의 찬가, 이원석의 정빈연설, 히스킨스의 찬가, 이순복의 정빈연설, 합킨쓰와 강영각의 음악, 이종해의 소설, 합킨쓰와 강영성과 강영각의 음악 과넷, 광림대의 본소 장래 정황 그리고 군악 후 폐회했다. 1915년 7월 광림대는 클라몬트를 떠났다. 이로써 그의 클라몬트 목사직은 길어야 7개월이었다. 그는 신한민보 방사원과 클라몬트 지방회 회장이었던 직책도 내려놓았다. 아마 그

는 나성으로 이주한 것 같다.

#### 나성 한인복음청년회

1917년 3월에 나성 지방회 학무원 김덕준이 사임함에 광림대가 보임되었다. 이듬해 2월 3일부터 나성 한인복음청년회는 매 주일 오후 7시에 청년강연회를 열고 풍기교정과 남녀 수양에 대한 필요한 문제를 강연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2월 3일에 남자 강사 김창만이 '남자의 눈에 보이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 강사 박순애는 '여자의 눈에 보이는 남자'에 대해서, 2월 10일에는 광림대가 교회 필박 전말에 대해서, 2월 17일에는 남자편 김태진과 장리옥이, 여자편 안헬렌과 민매니가 각각 '현 시대 한국여자들은 남자의 결제만 받는 것보다 아니 받는 것도 좋을 듯'에 대해서, 그리고 2월 24일에 박영로가 강연하기로 했으나 아직 주제는 미정이었다.

1918년 9월 5일 신한민보에 광림대가 '마이 울드 캔터키 홈'의 곡조에 노래 글 '동반도 옛집'을 게재했다. 이는 두고 온 그의 고향을 노래했지만 한인 모두의 나라사랑을 생각하게 한다.

1. 조일이 선명한 나의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조국이로다/선조들이 너를 창립하였고/또 너를 의지하였네/역천만대 자손이 우리 위하여/그 살과 또

학무원으로 보충되었으니 시카고로 이주한 것이 분명하다. 1920년 2월에 노백린과 김종립 등과 함께 북가주 윌로스에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하고 그해 7월에 개소식을 개최한 후 19명의 학생을 훈련하였는데 그는 연습생 감독직에 있었다. 그해 9월 7일에 그는 상향에서 캔터키주 린톤에 있는 캔터키 무관학교로 향했고, 군사이론을 수학했다. 1923년에 뉴욕국민회 지방회장이었던 그가 1927년에 행사단 미주위원부 이사부장에 선임되었



국립대전 현충원의 광림대(광림대)



1955년 시민권 신청서류의 광림대의 서명

다. 그가 1929년 1월에 나성흥사단 사무원으로 취직하면서 나성으로 다

### 클라몬트 한인양성소 교사와 한인장로교회 목사(전도사)로 사역 나성 이주 한인비행학교 설립, 흥사단 등 독립운동, 1970년 귀국

피로 단장한/저렇듯 장엄한 금수강산은/오 나의 조상 나라이로다

후렴: 사랑읍다. 나의 조국/오 나의 혈족들아/활동하세. 우리 민족의 자유와/조상 나라운명을 위하여.

2. 산은 높고 물은 맑은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고향이로다/산 밑에 소나무 내가 길렀고/성긴 참대 내가 심었네/무궁화 그대도 피어있는/가/못 잊을 생각도 사랑/저렇듯 화려한 금수강산은/오 나의 고향 나라이로다.

3. 죽어도 잊지 못할 동반도 옛집/ 너는 나의 사랑이로다/우리 선조 너를 내게 주시 때/만세 무궁 축복하시며/돌비를 세우 표적케 하심은/그 살과 또 피를 기억케/저러한 자유의 금수강산은/오 나의 성성한 옛집일세

세계 제 1차 대전 징병서류를 제출하던 1918년 9월 12일에 광림대는 나성 노스 피구에로아 스트리트 106번지에 있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사무직원이었다 그는 5피트 7인치의 키에 136파운드의 체구였다.

1919년 6월에 그가 시카고 지방회

시 이주했고, 그해 6월에 나성국어학교의 야학교사로 국어와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으며, 그해 9월에 한인 아동교육기관 기성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다.

#### 나성 한인예수교회 유사

1930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나성 버틀러 한인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감회사 데비쓰 목사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14장 17절까지 낭독한 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평안과 기쁨과 성신을 힘입음에 있다는 설교가 있었고, 오후 8시 30분에 남녀 100여 명이 미국남감리교 한인교회 조직과 환영회로 모였다. 강영성의 사회로 찬송가 237장을 부른 후 그의 기도가 있었고 이어서 개회사가 있었다. 그는 본 교회를 남감리교회로 변경됨과 이에 따른 임원조직을 언급하였다. 나성 한인예수교회 위원장 김성권이 본 위원회와 전반 교우를 대표하여 본 교회를 미국남감리교회로 조직하기를 허락함을 일반 교우 앞과

감회사 데비쓰 목사에게 선언했다. 이에 데비쓰 목사는 전임목사 황사용을 파송할 것을 선언했다. 임원조직에 있어 계속회가 열릴 때까지 유사를 두기로 하고 광림대를 비롯하여 강영성, 김성권, 임정수, 박재형, 박경신, 황성택 등 7명을 유사로 선임했다. 9시에 김성권이 환송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듬해 1931년 1월 4일 오전 12시 50분에 버틀러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감회사 데비쓰 목사의 사회하에 김성권이 기도한 후 계속회를 열고 임원을 선정했다. 이날 광림대는 유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말고도 유사에 황성택, 임정수, 박재형, 윤으로사 그리고 박경신이 선임되었다. 그 날 본 교회 목사에 황사용, 지방전도사에 강영성, 임성택, 김 강, 평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이 선출되었다.

1932년 2월 21일 주일 오후 4시에 미국남감리교 감회사 데비쓰 목사의 사회로 나성 한인 남감리교회 계속회가 있었다. 이날 보고를 접수한 후 동교회 재무였던 광림대가 사임을 하고 최능익이 선정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 난민과 재중 한인 구제를 목적으로 뉴욕과 시카고와 나성에서 중국 후원회가 조직될 때 광림대는 김강, 이경선, 신두식, 안석중, 최영성, 최봉용, 선우학일, 최능익, 김해란 등과 함께 나성 중국 후원회의 일원이 되어 활동했다. 그는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회장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1944년 10월 미주와 하와이 각지에 있던 13개 한인단체 대표가 회동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개조안 발표에 대한 대외회의에 참석했다.

1970년 6월 17일 광림대는 57년 만에 "빠만은 고국에 묻히고 파" 고국에 돌아갔다. 그에 따르면 "와보니 내 조국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된 느낌이고,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맛보게 했다. 말을 절반 밖에 못 알아들을 정도로 모든 게 격변하여 내 자신이 이방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기에 있고, 여인 환갑을 맞은 흥사단도 간재해 있으므로 차츰 정이 들어 비교적 화평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다."

귀국한 지 이듬해인 1971년 11월 24일에 그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망명객으로 한평생을 미국에 살면서 독립운동에 나선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한 그의 회고록 "뜻있어 화려강산"은 그가 세상을 떠난 2년 후인 1973년에 대성문화사가 펴냈다. 대한민국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는데 그는 지금 국립대전 현충원에 잠들어 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침례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8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집회: 오후 8:00 영, 위,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대외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b>앵커리지열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예)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회중: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1)



###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 (5)



4장 성경해석(성경해석을 위한 특별한 규칙)

퍼킨스는 마태복음 13장 5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설교내용(sermon, 4-8장)의 준비와 설교의 전달(preaching, 9-10장) 행위로 나눈다. 먼저 설교내용(설교문)을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유명한 ‘본문해석-교리분석-적용’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퍼킨스의 놀라운 통찰력이며 설교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는 설교노트를 잘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의 깊은 신학연구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이에 모두 5가지의 지침을 제공한다.

1) 성경의 기본 교리를 분명

비하기 위해서는 성경해석이 중요하다. 퍼킨스는 성경해석에 대해 정의하기를 “성경해석은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살펴서 하나의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는 로마교회가 추구하던 네 가지, 즉 문자적(literal), 풍유적(allegorical), 비유적(tropological), 신비적(anagogical) 의미를 거부하는 것이다. 퍼킨스는 단어들과 문장들에 대한 편협한 기계적 해석을 거부한다. 이에 퍼킨스는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말하기를 “성령의 주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가장 좋은 해석자다”라고 했다. 그리고 성경해석을 위한 3가지 보조수단으로

한다. 첫째는 한 본문을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는 다른 본문과 비교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 유사하거나 다를 수 있다. 유사한 부분은 어법이나 어휘 또는 의미에서 서로 일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를 열거한다.

바른 내용의 설교를 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방대한 성경과 신학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퍼킨스는 설교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공부를 다음 순서대로하기를 권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

다른 책의 해석과 달리 이런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성경에 인간적인 문학적, 역사적 특징이 있으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신학적인 책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인 성령일 수밖에 없으며,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은 일차적으로 성경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는 성경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 세 가지 보조수단을 잘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 보조수단은 믿음의 유추, 문맥, 비교이다. 그가 제시하는 이런 성경해석의 원칙들은 바른 성경해석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그는 성경해석을 성경본문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과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할 여러 가지 해석규칙을 설명한다. 이런 일반적인 해석규칙들은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책에도 통용되는 해석규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성경은 본문의 특성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을 천명한다. 무엇보다 본문이 유추적이고 분명한 구절이라면 믿음의 유추와 확실하게 일치한다. 그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맡겨진 자녀양육

질문)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일만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남편과 사는 것은 무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애 들을 데리고 안팎으로 뛰던 중 주위의 가까운 분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며 일을 싣다면 남편이 책임지지 않겠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고치서 가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던 아들과 장보려 갔다가 신용카드가 가득찬 이유로 고른 물건들을 두고 나와야 했을 때 참담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며 살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제 7, 8년이 지나 아들은 십대에 들어섭니다. 어떻게 책임감 있는 한 사회인으로 기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무게를 느끼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자녀 불안과 분노 이해하고 필요 채워주고자 최선을 다해야

답)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 속 처러야 할 숙제들 중의 하나가 맡겨진 자녀들의 양육일 것입니다. 가정에 금이 가고 끝내는 잘라져 버린 만큼 자녀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주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싱글 어머니로서 특별히 조심할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우선,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만 감정조절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따로 보기보다는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낮추어 말할 때 결국은 나 역시도 자녀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보상심리 속에 과잉보호할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가르치듯이 엄하게 대해야 할 경우 ‘아들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평안을 가져다주고 네게 큰 기쁨을 줄 것이다’(29:17) 곧 비운 후의 굳어지는 땅처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단단한 자립정신 속에 훌륭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들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이혼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와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문제’라고 설명해주어 어린 마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밖에 그들은 언제가 부모가 재결합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 어머니나 아버지로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적어도 자녀들이 18세가 되어 대학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생일, 졸업식 등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에 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그들 또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우려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한 발생합니다. 지속적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성인이었을 때 대우는 물론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녀양육 기본원리를 든다면 사랑의 환경, 건강한 부모와 자식관계, 신뢰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환경.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거친 삶에 부대끼다보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부모와 자식관계입니다. 배우자가 떠났을 경우 남은 가족이 되는 자식과 지나치게 결속(soul tie)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9면으로 계속)

## 성경해석의 가장 중요한 참고문헌은 일차적으로 성경 자체 보조수단은 믿음의 유추, 문맥, 비교... 문자적/은유적 해석도

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한다. 2)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요한복음-신약성경의 나머지-시편-이사야-역사서(특히 창세기) 순으로 읽으라고 권한다. 3) 정통 기독교인들의 작품에서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한다. 고대교부들의 작품들과 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기록된 저서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4) 중요한 아이디어를 잘 메모해 두어야 한다. 언제든지 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5)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 박태현 교수는 “퍼킨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령에 의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석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의미를 열어 주실 때 보증되는 것”이라 말한다. 본격적으로 설교문을 잘 준비

시켜, 사도신경과 십계명에 표현된 믿음의 유추와 특정한 본문의 문맥, 그리고 한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1) 믿음의 유추는 잘 알려지고 확실한 부분에서 나온 성경요약이다. 이 믿음의 유추에 두 가지의 사도신경에서 다루는 믿음이며, 또한 십계명에서 상술되는 사랑(자비)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딤후1:13).

2) 문맥은 누가 말하며, 누구에게 말하며, 어떤 경우에 대한 것이며, 어떤 때이며, 어떤 장소와 목적이며, 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탐구해 나가라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 다른 구절과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분명하게 하라고 권하며 두 가지 구체적인 비교의 실례를 제공

한 답변을 준다.

5장 성경해석원리(성경해석을 위한 일반적 규칙)

본격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는 성경해석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성경해석은 본문에서 하나의 충분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본문에서 문자적, 우화적, 비유적, 영적 의미의 네 가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중세의 4중적 성경해석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가장 탁월한 성경해석자는 성령이시며, 가장 탁월한 성경해석수단은 성경 자체라고 한다.

“성령의 주된 해석자는 성령이시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가장 좋은 최고의 해석자다. 성경해석을 위한 최고의 절대적인 수단은 성경 그 자체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라 신비적이거나 감추어진 구절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만약 말씀의 자연스러운 의미가 믿음의 유추나 성격의 매우 분명한 부분과 확실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의미, 즉 유사하지만 다른 구절, 그 구절의 배경과 어휘를, 그리고 논 의는 본 절과 일치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해석의 규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1) 생략된 것에 대한 해석은 믿음의 유추와 일치하고 문맥의 배경과 허위에 일치하는 단 어들을 넣는 것이 적절함을 지지시킨다.

2) 수사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어떤 이름(명사)을 다른 명사로 바꾸어도 본문의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수사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h4>뉴욕몽양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세례기도회: 오전 09:45</p> <p>Tel. (718) 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 265-2584, www.l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04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없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pcpc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석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간이신앙심화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9: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www.kapc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맨큐버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8기도회: 화, 목, 금, 토, 일 금요찬양 기도회: 매월 목요일 오후 7:30</p> <p>Tel. (604) 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i, S. Paulo Cep 01528-010</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인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함곤 선교사 1. 워싱턴 번식 신학교 교수 2. 워싱턴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 3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숨 막히는 세상, 살 만한 세상”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성은 자신을 과도하게 제압하는 경찰을 향하여 “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 소리치며 죽었다. 그의 외침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외침이 되었다.

우리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우리의 선배 세대들, 한국전쟁 전후에 이데올로기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루아래 같은 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사람들, 그 후에도 무서운 독재정권의 공권력 앞에서 숨죽여야 했던 세대들, 상하관계의 엄격함 속에서 온갖 언어와 신체적 폭

력을 온 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직장과 조직에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한국에서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고 최희석 씨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국의 철인경기의 유망주인 고

최속현 소녀는 지도부의 언어와 신체적 폭력으로 스스로 자신의 호흡을 끊으며 이 세상을 떠났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 막히게 만드는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목숨을 끊었던가?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가진 작은 권력으로 약자의 목을 짓누르고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믿음의 선진들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극한 시련들을 직면하고 괴로워했다. 욕은 폭풍같이 몰아닥친 일련의 시련들로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토로하였고(욥9:18).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다고 두려워하였다(시17:12).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실로 숨이 턱 막힌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숨 막히

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 내었는가? “하나님이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숨)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2:7). 숨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숨이 사라졌다. 사람이 숨을 쉬지만 그 속에 참된 숨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에 쉽게 숨이 막히는 괴로움을 당한다.

주님은 억눌림과 숨 막히는 상황 속에 놓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말씀하시며 각종 억눌림, 현대적 용어로는 스트레스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을 쉬어주기 원하신다. 그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

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말씀하셨다.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들의 숨을 트이게 해주셨다.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들이 마시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숨을 들며 마실 때 막혔던 숨이 터지고 생명이 소생한다. 성도는 그런 주님으로 인하여 숨을 쉬는 사람들이고, 또한 숨 쉬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터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악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서로의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서로를 통해서 더욱 살 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dik0184@yahoo.com

코로나19 재확산, 가주 예비당 등 폐쇄

뉴섬 주지사 13일 가주 전역 폐쇄명령에 현장예배 불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13일(월) 정오 가주 전역에 폐쇄 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이번 명령은 가주 30개 카운티에 발효되는데 해당 업종으로는 피트니스센터, 종교 시설(예배당), 비필수 사무실(non-critical sectors), 퍼스널 케어 서비스, 미용실과 이발관, 쇼핑몰이다. 이번에 지정된 30개 카운티

는 LA, OC, 샌디에이고 등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과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솔라노, 스탠니스러스, 셔터, 용로, 유바 등 북가주 지역과 전체 인구의 80%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던 현장예배가 다시 중단됐다.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7월 19일부터 오픈하려던 현장예배를 잠정 연기했으며 5월 31일 현장예배를 재개

한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목사)와 7월 첫째 주부터 현장예배를 재개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26일까지 현장예배를 중단했다. 이번에 단행된 현장예배 중단으로 현장예배 재개를 준비 중인 교회들과 다시 중단된 교회들이 혼란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준호 기자>



CMF 7월정기모임예배에서 채형병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CMF선교원 7월 선교사 정기모임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7월 4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7월 선교사 정기모임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7월 정기예배는 CMF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돼 제프 김 선교사(영국선교

사)가 대표 기도한 후 성경말씀으로 사회자가 봉독한 후 채형병 목사(CMF)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설교했다. 채 목사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나도 열심

을 다해 사역을 하셨다. 뻥뻥한 사역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가정에 병이 들면서 나는 사역의 결과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왔었다. 본문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며 “일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봉사, 충성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교 후 채 목사는 합심기도를 인도하며 먼저 내 자신의 회개 기도한 후 인종간의 화합과 한국과 미국지도자와 교회지도자와 선교를 위한 회개와 회복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하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CMF 선교원에서는 9월부터 결혼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 기자)



샌드캐년 컨트리클럽 스티브 김 대표

스티브김 대표 7만 달러 쾌척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및 가정폭력피해자위해

샌드캐년 컨트리클럽의 스티브김 대표가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한인가정상담소에 7만 달러를 쾌척했다. 이에 한인가정상담소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20명의 위탁가정 및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총3개월에 걸쳐 주거렌트비, 공과금, 식품 및 생필품 마련을 위한 생계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살 길이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의 관심과 도움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스티브김 대표는 한인 가정상담소의 많은 클라이언

트들이 코로나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기부 의사를 밝혀주셨다”며 “한국의 꿈희망미래재단 뿐만 아니라, 장학 및 인성교육사업에 매년 200만불 가량을 지원하며 이타적 가치를 오랜 신념으로 삼아온 그가 많은 한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자일랜을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매각함으로써 IT업계의 성공신화를 이룬 바 있으며, 오래 전부터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불문하고 여러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문의: (213)235-4848 이미리 홍보담당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소망소사이어티 치매돌봄교육 화상세미나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치매가족 돌봄교육”을 오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화상세미나로 진행한다.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 협의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치매가족 돌봄교육’은 시리트로 실시된다. 지난 6월의 “공감하는 대화: 새

로운 이야기 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주제로 개최된다. 8월에는 “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인원 제한은 없으나, 화상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안내를 받아야 하므로 7월 17일(금)까지 소망소사이어티 본부(562-977-4580)로 문의하거나 이메일(somang@somangociety.org)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제31집 발행

창간 제37주년 기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창간 제37주년 기념 제 31집 발행됐다. 31집은 총 520페이지로 축시, 축사, 회원 시, 초대 수필, 회원 수필, 초대 소설, 농단, 생명의 샘, 문학 산책, 특별기고, 세계의 명시, 산문시, 신앙 도서, 독후감, 특집, 아동문학, 선교, 애송시, 시론, 신인 등단 등으로 편집되어 있다. 현재 임원진은 이사장 정지윤 목사, 회장 류민호 씨이며 오는 8월 8일(토) 로텍스호텔

에서 31집 발행과 신인등단 축하 행사를 갖는다. 본 협회는 김문희, 강일, 정지윤, 이은희, 남해성, 남정자, 권구철, 이영일 등 이상 8명이 발기인으로 1983년 11월7일에 창립돼 오늘에 이르러 문학에 사랑하는 이민자들이 모여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신앙과 힘과 용기를 베풀면서 37년 동안 이 단체를 운영해왔다. 2014년 1월1일 미주크리스찬 문학현장을 발표했다. 서문

에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한다. 문학은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사람과 고결한 영혼의 갈망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영혼 구원과 사회평화의 길잡이가 된다. △인류의 평화 자유 행복 추구에 기여한다. △삶의 가치와 아름다운 인생 개관을 모색한다. △기독교적 가치와 세속적 문화의 벽을 허물고 당위성을 찾는다. △투철한 신앙과 풍부한 예지로 기독교 문학의 이상을 실현한다. ▲행사문의: (213)249-0771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3)문법적, 수사적 특징에 따른 해석이다. 4)모순에 대한 해석이다. 성경에서 분명한 모순은 설명 그 어휘가 같을지라도, 그 구절이 서로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서로 다른 양상이나 관점 또는 서로 다

른 시간 구성들을 다루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자연적인 의미는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 단락의 자연적 의미를 알아낼 수 있을 경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에 대해 그 단락의 문맥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6)난외주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성경의 난외주는 그 구절의 현존하는 사본들의 일부 변화를 보여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때로 언급하기에, 정확한 독법은 문법적인 구성과 다른 신뢰할 만한 사본과 일치하는지, 문맥과 구절의 의미와 맞는 지, 기르고 믿음의 유추와 일치하는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한부모가정사역

(8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심대에 들어선 자녀들은 그들 또래와의 모임이 필요할 텐데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자녀를 붙드는 한부모들이 있다. 이는 곧 자녀가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마치 친구인양 그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삶의 힘든 문제들을 나누려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른들의 문제에 어려서부터 놀리게 되어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관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한쪽 부모가 떠나는 것을 체험해야 했기

에 현재 남은 부모도 언젠가 떠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함께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잠 23:17,18). 성경속 인물 중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했던 어머니로 요게벳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임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나...’(창 2:1-3).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감추어 기른 후 갈대상자에 담아 떠나보내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12살까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교육했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보여주었던 모세를 통해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열쇠입니다. “골녀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복을 받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6:2, 3). kdrministry@gmail.com

코로나19에 온난화 재앙까지 ‘설상가상’

(3면에서 계속) 온실가스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보루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강의 열대우림 60%가 브라질에 있다. 그런데 불법 벌목업자와 농장주들이 삼림에 일부러 불을 질러 경작지를 넓히고 나무를 베어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기 위

해 아마존 열대우림 일대에 군대까지 배치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이 견줄 수 없이 확산되는 브라질에서 불법 방화행위를 단속할 여력이 없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류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쿨은 러시아 시베리아,

수십 년 만에 최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인도, 광대한 먼지 구름에 갇힌 미국, 속수무책으로 산불이 번지는 브라질. 환경재앙에 직면한 이들 나라는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코로나19 대응에 몰두하느라 이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전 지구적인 환경재앙이 눈앞에 닥친 줄도 모른 채 손 쓸 틈도 없이 인류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 교계 게시판

## 뉴욕교협 미디어분과 세미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 미디어분과(위원장 문석진 목사)가 주최하는 중소형교회 목회자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예배 방송 세미나가 7월 20일(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는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 촬영, 편집, 음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하고 직접 상담하며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 CTS뉴욕방송, CBSN뉴욕 기독교방송, RJ Perfect Production이 후원한다.

▲문의: (718)414-4848, (917)392-2773

## 배현찬 목사 은퇴감사예배

버지니아주 주예수교회 배현찬 목사의 은퇴감사예배가 7월 26일(주일) 오전 10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만 예배에 참석하며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된다. 배현찬 목사는 21년 전 주예수교회를 개척했으며 이민목회는 39년을 사역했다.

▲문의: (804)560-7500

## 퀸즈장로교회 온라인 VBS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온라인 2020 VBS가 8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영아부와 초등부.

▲문의: (718)886-4040

## 다음세대 위한 ZOOM VBS와 TEEN 코스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음세대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을 연다.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Bible Study: 7월 6일-8월 24일 매주 월요일 오전10시-11시30분(미주동부시간) 8주간, 6-12학년(중학생, 고등학생 나눠), 등록비 80달러(교재비 20달러 별도) 등록 후 교재는 집으로 발송된다. △2020 ZOOM VBS-Backstage With The Bible: 7월 20일-23일 오전10시-11시30분(미주동부시간), 1-5학년, 등록비 20달러. △Teen Prass 등록:https://forms.gle/uUe96URuRsrVhZ59 △Zoom VBS 등록:https://forms.gle/xFCZ8f6egaYjAtUa7

▲문의: (646)300-4790, woeltarius@gmail.com

##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 오픈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영화로 복음을 변증하는 명쾌한 강의 “가스펠 인사이트 스쿨(Gospel Insight School)”을 화상 앱 ZOOM으로 연다. 크리스천이 아닌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했던 강의에서 수많은 호평을 받은 명강의로 부모가 등록하면 자녀는 무료다.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미주동부시간) 진행된다. 등록비 30달러(https://forms.gle/6rGnuaykSdrW3HAM7)

▲문의: (646)300-4790, woeltarius@gmail.com

## 장학생 모집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가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종류는 KPCMD교회 장학금, 조규홍장로 장학금, 이준재장로 장학금이며 신청 자격은 2021년 봄 학기에 미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현재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각 장학금마다 신청조건의 차이가 있다. 웹사이트(www.kpcmd.org) 장학위원회의 장학금 신청안내를 참조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2020년 8월 31일. 신청방법은 교회 웹사이트http://kpcmd.org/g5/pages/KPCMD\_scholarship.php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문의: scholarship@kpcmd.org

## ANC 장학생 모집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2020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월)까지이며 신청접수는 ANC 장학회 홈페이지(http://ancsf.us/)를 통해 받는다.

▲문의: (323)219-0735최운호 총무 ancstfug@gmail.com,

## 사랑의빛선교회 장학생 모집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은 SEED장학금(등록교인 및 자녀로서 2020년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엘리트장학금(미주목회자자녀 및 선교사자녀로서 2020년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장탄육장학금(목회자, 선교사후보생으로서 2020년 대학입학예정자 및 대학생(4년제), 신학대학원생) 등이며 7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lolmc.SEED@gmail.com, lolmc.ELIM@gmail.com, lolmc.JTO@gmail.com

## 뉴욕효신장로교회 온라인 서머캠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가 7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인 서머캠프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더 파워(The Power)’를 주제로 참가대상은 프리K-6학년이며 심어롱, 영어, 수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교회는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온라인 한국학교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며 참가대상은 프리K-6학년, 참가비는 일인당 11달러.

▲문의: (347)905-6990

## 자마 무료 온라인 중보기도 컨퍼런스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가 주최하는 무료 온라인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8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 열린다.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여년간 교회와 차세대들을 위한 중보기도자 훈련을 목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열린다. 집회강사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호성기 목사(필라 안디옥교회), 강민수 목사(시키고 레이뷰 연합교회), 강일진 목사(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박반석 목사(뉴저지은혜체플), 배성호 박사(최순자 박사, 김춘근 교수)와 강순영 목사. 참석희망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설교제목과 강의안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ipc.jama-global.com

# 뉴욕교협 2차 긴급지원 67교회에

### 드라이브인 기도회 갖고 총7만여 달러 전달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회원 교회들에게 2차 지원을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3일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기도회(Drive In Prayer)를 갖고 67교회에 지원금 총 7만여 달러를 전달했다.

오전 10시에는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51교회에, 11시부터는 비회원교회를 대상으로 16교회에 전달했으며 각 교회에 최소 1천 달러를 전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사랑의 나눔을 계획하고 1차 교회간 지원으로 9교회를, 이번 2차로 67교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 목사는 긴급지원금 행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때이기에 교협에서 모금행사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중소형교회는 나름대로 다 어려워왔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았으며, 교계에 부담을 준다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희생하며 상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회장 양민석 목사(오른쪽)는 뉴욕교협 2차 지원을 위한 드라이브인 기도회에서 교회대표 이준성 뉴욕목사회 회장(왼쪽)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라고 생각했기에 임원들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모금행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양민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연합하는 마음들을 보여주셨다”며, “중경회장단에서 모범을 보였고, 대형교회, 중형교회에서 힘을 실어 주었으며, 본인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고 지원금을 보내준 작은 교회들도 있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렵지만 힘을 모아 주신 교계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교회를 대표해 뉴욕목사회 회장 이준성 목사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한편 뉴욕목사회는 마스크 6

백개를 교협에 전달해, 교회들은 기금과 함께 마스크를 받았

다. 성금을 전달할 때 차에 타고 있던 교회 대표들은 클락션을 누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준성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까지 들었는데, 교협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실의에 빠질 수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67개 교회를 돕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46년 교협역사상 최고의 해”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코로나 퇴치와 예배회복을 위한 합심기도가 진행됐으며, 기금모금에 사비를 털어 동참한 중경회장을 대표해 이재덕 목사 축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 팬데믹 속 뉴욕 뉴저지 연합대회 일정변화

### 뉴욕할렐루야대회 9월 중순, 뉴저지호산나대회 취소

오는 7월 17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할렐루야대회가 9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2-3일 동안 실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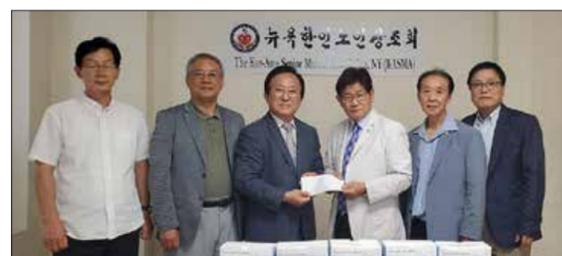
뉴욕교협은 지난 7월 임원회를 열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구체적 진행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한국 강사는 취소됐으며, 현지 강사였던 브루클린 태버나클교회 정 삼발라 목사와의 일정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상황은 쉽지 않지만 교회와 예배가 힘을 잃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할렐루야대회를 통해 교회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동안 절감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이 주최하는 최대 연합집회인 호산나대회는 7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강사로 예정됐던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지난 5월 열린 국가기도의 날 뉴저지기도회에서 설교한 것으로 대회를 대신한 셈이 됐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임원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호산나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부활절새벽기도회나 국가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해보았으나 실제 참석인원은 많지 않았다. 단지 대회를 치른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뉴욕교협과 뉴저지교협은 회원교회들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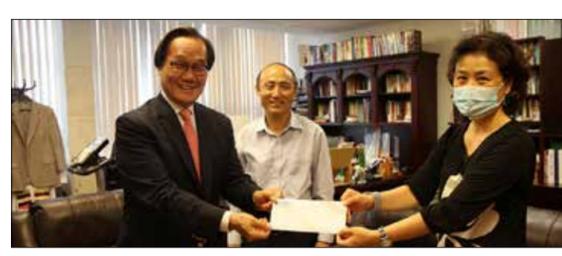
사진은 위로부터 뉴저지교협 임원단인 뉴저지성목회, 뉴저지한인성교회, 뉴욕한인성교회를 방문해서 기념촬영 했다.

# 뉴저지교협, 노인단체에 마스크와 후원금 전달

### 뉴저지성목회, 뉴저지한인성교회, 뉴욕한인성교회 방문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7월 7일 오전 뉴저지성목회(오전 10시30분), 뉴저지한인성교회(오전 11시), 뉴욕한인성교회(정오)를 방문해 각각 마스크 500개와 후원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COVID-19로 어려움 당한 어르신들을 격려하자는 이사회 의 제안을 받아들여 임원진의 동의를 통해 이 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필라한인교회 호성기 담임목사가 필라한인회 황사론 회장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있다.

# “국경과 인종 초월한 사랑 나눔”

### 대덕교회와 필라한인교회, 총38,100달러 구제한금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으로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의 여파로 약탈이 자행되면서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국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덕교회(대전 소재) 유재경 담임목사는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폭동 피해자를 위한 구제한금을 제안했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1만 달러의 현금이 건어지게 됐다. 이 현금은 필라 안디옥교회에 전달됐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한국에서 보내온 사랑의 헌금에 감동을 받아 구제한금에 동참했으며, 안디옥교회 안에서만 총 28,100달러의 현금이 건어지게 됐다. 총 38,100달러는 안디옥교회 안에서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전달됐고, 본 금액 중 5000달러

는 필라한인회(회장 황사론)에 전달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했다. 이 헌금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한국의 한 교회(필라한인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다는 것이고, 안디옥교회에 속해있는 안디옥 다섯 교회 모든 성도들 즉, 한국인, 백인, 흑인, 스페인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온 이민자들까지 이 구제한금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안디옥교회 호성기 담임목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라며, “예수 안에 서로 하나 되고 돌보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필라한인교회)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제 86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새 노회장 김종태 목사, 부노회장 이민철 목사

### 예장(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제86회 정기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제 86회 정기노회가 7월 7일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3부 회무처리에서 선출된 새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종태 목사 △부노회장 이민철 목사(서기 권한 대행) △회무서기 이종수 목사 △회계 이대길 목사(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 정익수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한 통성기도를 제안하고 직접 인도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김영록 목사 기도 후 김종태

목사가 시편 2편 1-8절을 본문으로 “병인교난(丙寅教難)”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황동수 목사(서기)의 광고 후 정익수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성찬예식은 이민철 목사 집례로 정대영 목사(증경노회장) 기도 후 이민철 목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본문으로 “영생(永生)은 예수의 삶과 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대길 목사가 분별을, 김영록 목사가 분잔을, 권영길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회무 처리를 마친 후 신임 노회장의 축도로 폐회했다. (기사제공: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0)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3. 미국 청교도 사상의 신학적 원리(Theological Principles)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커다란 부흥을 가져다준 청교도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후예인 존 나스(John Knox),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twright),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매튜 헨리(Matthew Henry), 존 오웬(John Owen),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코튼 매더(Cotton Mather),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 마틴(Martyn),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Livingstone), 중국 선교사 모리슨(Morrison) 등 개신교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로써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뿌리는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영국의 프로테스탄트이며, 회중파들(Congregationalists)이며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라무스(Ramus), 카트라이트(Catwright), 퍼킨스(Perkins)의 계승자들이다. 이들 기독교 개혁가들의 슬로건은 “예정설”과 “믿음에 의한 의인(Justification by Faith)”, “성경은 모든 것의 지침서”라고 믿는다. 특히 청교도들에 의해 저작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된다.

이와 같이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의 유일한 근간은 성경이다. 물론 청교도들은 다양한 신학적인 뿌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들은 후대에 감리교회에 영향을 주고, 침례교회에 영향을 주기도 했으며, 고 교회주의자들

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직하게 초기의 청교도들은 모두 칼빈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학과 사상은 종교개혁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국 국교회(성공회)에 종교개혁이 온전히 완성되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교도들의 신학과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문헌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종교개혁의 5가지의 모토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기초로 형성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의 모토(Motto)는 ①오직 성경!(Sola Scriptura) ②오직 믿음!(Sola Fide) ③오직 은혜!(Sola Gratia) ④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 ⑤오직 그리스도!(Sola

Christo)가 청교도들의 신학적 원리요 실천적 삶이라 할 수 있다. 위 다섯 솔라(Five Sola)는 종교개혁 기간 동안 나타난 다섯 가지 라틴어 표어이며, 로마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개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나타낸다.

1) 청교도 신학과 사상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Only through Scripture)



종교개혁자들 (Religion Reformers)

종교개혁 5가지 모토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기초로 청교도 신학과 사상 형성 초기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 후대에 감리교회, 침례교회, 고교회주의자들에게 영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1) 존 칼빈(John Calvin)의 ‘오직 성경’ 사상은 영국과 뉴잉글랜드 청교도의 신학적 기초였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 이 기독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지침을 얻는 원천이며, 성경 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신학’이다. 성

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강조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말들에 대해 일반적인 상

식이나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성을 감히 훼손할 만큼 그렇게 통탄할 정도로 광학한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 하시기를 원하셨다(요5:39).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을 친히 듣는 것과 같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달라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기 청교도인 존 주웰(John Jewel, 1552-1571)은

의 두 원천이라고 천명한다.

중세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고, 교황이 이 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가 진해되었으며, 스키피 철학의 전통까지 가세하면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는 요원해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그레고리 1세 이후 형성된 신학전통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 원칙을 주장하였고, 교황만의 성경해석권이 반대하면서, 성경 자체의 자기 해석(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을 천명했던 것이다.

루터는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하여 “나의 신

며 표준이라는 것이다.

그 밖의 종교개혁자들도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성경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교회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경이 신적인 기원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교회 위에 두고 있으며, 오직 성경(Sola Scriptura)만이 그들의 신학과 사상의 최고의 권위가 되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사상은 그대로 청교도들에게 이어진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West Coast (CA) region,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가족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새교회, 종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고향교회, 아홉소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교계 힘 모아

국회 ‘법제정 반대청원’ 10만명 동의, 법사위 심사 돌입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글이 8일 청원 동의 목표 10만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추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9일 현재 18만2400여 명이 참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는 15일 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15일 만에 목표치인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지난 2일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국민동의청원 글은 9일 현재 1만22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은 진평연이 추

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동참하며 힘 보태기에 나섰다.

기하성은 지난 7일 열린 제69차 제1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소속 교회의 진평연 캠페인 동참을 독려키로 했다. 예장고신은 지난 4일 ‘전국 교회 목사님들에게 긴급으로 드리는 글’을 통해 교단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법 반대 영상을 주일예배에서 상영해줄 것과 교회 외벽에 차별금지법 반대 플래카드를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평연이 추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는 9일 현재 15만여명의 일반인과 2만 4900여명의 목회자, 1600여명의 교수와 법조인이 참여했다. 보건의료인원은 3400여명이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495개 법조·종교·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연합체다.

## “지금 상황 4회말...교회가 사회회복 역할해야”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 코로나19 시대 교회를 말한다

“지금은 포스트코로나를 말할 시점이 아니에요. 야구로 치면 9회말이 아니라 4회말쯤 되겠죠.” 미래학자인 서용석(51)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교회(GMS) 선교본부에서 열린 선교전략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모태신앙인 서 교수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미래전략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포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와일드카드’라는 한 단어로 정리했다. 와일드카드란 미래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상당한 영향 또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과거 와일드카드는 발생 확률이 낮거나 예측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한반도 지진이나 블랙아웃(정전) 사태처럼 상시화되고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13일 서 교수에게 전화로 물었다. 서 교수는 “와일드카드, 즉 ‘극단적 사건’의 상시화는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뜻”이라며 “불확실성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고민하며 선제적 사고와 대비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가와 조직이 ‘극단적 사건의 상시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오히려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한국교회와 관련, 서 교수는 미디어 이론가인 마셜 맥루한의 테트라드(Tetrad) 이론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미디어는 어떤 사회현상을 강화시키고 한편으로 진부화시키며 무엇인가를 회복시키고 한계에 부딪히면 다른 형태로 발전(변형)시킨다’는 이론이다. 이를 한국교회에 적용해 “포스트코로나가 가져올 뉴노멀의 시대는 한국교회의 무엇을 강화시키고 무엇을 진부화(쇠퇴)시키고 무엇을 회복시키고

한계에 부딪혀 어떠한 형태로 발전될 것인가”로 바꿨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맞이할 변화를 ‘강화’ ‘회복’ ‘진부화’ ‘회복’ 4개 카테고리로 구분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19로 한국교회에 강화되는 부분은 지역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의 신앙생활과 영성훈련이라고 봤다. 예배 방식은 유연해지고 미디어 도구가 활성화된다. 교회와 사회가 협조하는 공감 능력의 회복, 물질문명의 홍수로 잊었던 영적 구원과 탈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 측면도 있다. 서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와 기복 중심의 종교에 대한 실망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위상이 약화되면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상처받은 한국사회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사회자본을 제고하는 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자본 요인은 신뢰, 봉사, 좋은 관계 등”이라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결핍된 사회자본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 기독교인·교회 차별 논란

카페·식당 수많은 모임 중 왜 교회 모임만 벌금내야 하나요?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외 금지 조치’ 발표가 있던 지난 8일 한 목회자의 SNS에 “공급함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뚝뚝tv’ 운영자이자 일산하나교회 담임인 김동진 목사는 “소모임, 식사제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해봤지만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다”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요약하면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가’와 ‘교회 식당에서 먹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가’였다.

김 목사는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정부의 조치를 교인들의 생활 속 교제에 대입해 보면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며 “이런 지침을 내리는

분들이 기독교인, 교회를 차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말했다.

그는 “카페나 식당에서 교회 모임을 가진 교인들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라며 “만약 다른 손님들은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왜 교인들은 벌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모임 중 ‘교회들 모임’만 금지하라고 하는 건 심각한 차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소모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성도들의 친목 도모까지 일일이 걸러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교회

명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성경공부, 구역모임 등의 타이틀을 달지 않고 외부에서 진행하는 모임이라면 괜찮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목회자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대답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는 걸 포기하라. 차라리 (교회 모임이 아니라)고 둘러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는 과거 독일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특정 인종을 탄압했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카페 식당 입장 금지”라는 팻말이 달리는 것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 모임금지 행정명령, 과연 공정한가?’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게시했다(사진). 한국교회언론회는 “교회는 전혀 감염의 온상이 아니다”며 “이런 방역 조치가 교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시대, 지역교회 돌봄 사역 협력해야”

기감 긴급세미나 강철희 교수 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교회들이 힘을 합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돌봄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정기연회(감동 김학중 목사)가 9일 경기도 안산 감리교회 어섬홀에서 연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를 주제로 한 긴급세미나에서다(사진). 세미나에는 사전 등록과 철저한 방역을 마친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대신 전체 내용을 줌인교회 유튜브

브 계정으로 생중계했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면서 “상류층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하류층으로 갈수록 삶의 불안 요인이 크고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말한 “큰 어려움은 공동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해 온 교회의 정체성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수습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사역하는 교회들은 앞으로 교인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약한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역교회뿐 아니라 지자체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선두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중 감독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변화의 본질을 통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길을 모색하는 뜻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예장합동 9월 총회 일정 5일→2일로

코로나 장기화 따라 교단사상 최초로 신속 총회 진행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이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5회 정기총회 일정을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총대 1500여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예장합동은 오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총회를 치를 예정이었다. 103회 총회 당시 현의 안 결의와 안건토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개최 3일 만에 파회한 적은 있지만, 총회가 2일 동안 진행되기는 교단 역사상 처음이다.

소강석 예장합동 부총회장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총회 기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방안, 총회진행 방식, 개최 시간 조정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은 통상 개최 후 2일차까지 신임 임원과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각 부 조직을 진행한다. 이후 3일차부터 각 부 보고 및 청원, 노회에 상정한 안건 처리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처리한다. 당장 2일 안에 총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째 날 모든 선거 및 선출 일정을 완료하고 둘째 날 각종 의결 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소 부총회장은 “둘째 날까지 논

의를 최대한 진행한 뒤 미진한 부분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방안,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시 둘째 날 총회를 정회한 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월에 총회를 속회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 분부 및 총회 개최 장소인 새에덴교회 관계자들과 치밀하게 방역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해 모범적인 방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오인호 목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총회 준비 일정을 소개했다(사진). 준비위는 오는 20일부터 5개 권역(대전 호남 영남 서울 서북)에서 지역감담회를 열고 지역별 현안을 확인할 계획이다.

## “줌·유튜브를 양육도구로 언택트 신앙에 예수깃발”

예장합동 총회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 ‘...교회교육 디자인하다’ 포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교회학교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다음세대부흥운동본부(본부장 권순웅 목사)와 교육개발원은 13일 서울 종신대에서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포럼을 열었다.

오전에는 권순웅 목사와 교육개발원장인 라영환 총신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권 목사는 “언택트 문화를 선교학적으로 변형해 양육 교제 전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등 언택트에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했다. 라 교수는 “다음세대가 무엇

을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근거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불평등도 문제인 만큼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를 저소득층에 배부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총신대 교육 전공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부터 중·고등부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허계형 교수는 “영·유아기엔 직접적이고 감각적이며 경험을 중시하는 학습 특성이 있어서 언택트 교육을 위해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배 규칙 정하기, 일과표 제작 등을 제시했다. 유·초등부 발제를 맡은 함영주 교수는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적 표현을 미디어를 통해 직접 만들 수 있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등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컴퓨터교육 전문가인 김수환 교수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중·고등부를 위해 온라인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중·고등부 교사인 김 교수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활용한 실시간 성경공부, 유튜브를 통한 성경말씀 묵상 등 직접 활용한 온라인 미션 사례와 방법을 소개했다.

유은희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쉽게 잃을 수 있는 목사의 능력을 키우고 아이들을 진짜 제자로 키워낼 방법에 대한 고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만만찮았다

여론조사기관 2곳, 법안 내용 담야 설문해보니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와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이 4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과 ‘더오피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0%와 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연령별로 30대(57.8%) 성별로 남성(52.6%)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비율이 높았다. 더오피니언의 조사에선 50대(43.5%)와 남성(42.8%)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은 여론조사 공정

과 더오피니언에서 각각 32.3%, 38.8%로 국가인권위 조사와 비교해 50% 포인트가량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21.7%, 20.5%였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반대 의견은 각각 55.2%(여론조사 공정) 52.2%(더오피니언)였다.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일의 양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체 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 “교인이 감염되면 ‘교회발 확산’ 인가”

전체 확진자 중 교인 3.2%...원인도 상당수 교회 밖 감염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 먹고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교회 교인이면 ‘교회발’ 확산이 되는 일엔 앞장서고 약한 교회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역교회뿐 아니라 지자체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선두에서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가 8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뒤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와 일부 여론이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 목회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3293명”이라며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은 429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3.2% 정도”라며 정부의 침소봉대식 해석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도 지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본의 코로나19 확진자 분류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은 틀린 표현입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중대본 발표에서 언급된 수원시 교인 모임 관련된 표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라는 추정이 있었다”면서 “심층 역학조사 결과 ‘교회 내 감염이 아닌 교회 밖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중대본에 ‘수원시 교인 모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소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특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기도의 한 중형교회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소모임 하면 감염되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소모임 하면 감염 안 된다”는 발언인지 궁금하다”며 “아니면 소모임 가능한 식당, 카페도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우울증과 영적 치유” (20)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12. 병후

아주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와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 속 창고 안에는 정신적 파일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잊고 있었

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 특히 그녀 아버지와 관계를 청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희 세 자매를 기르셨어요. 아버지는 매우 엄하셨죠. 제가 십대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거부하시며 혼내실 것이 두려워서 낙태를

했습니다. 제 언니가 십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언니를 집 밖으로 내 쫓으셔서 언니가 정말 크게 힘들었던 것을 봤거든요. 그게 저에게 크게 작용했던 거죠. 저는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조금만 덜 엄하셨다면 아마도 제가 낙태까지 하진 않았겠지요. 그렇게 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 있

차례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을 그녀 아버지에 대해 화를 품고 살아온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녀 아버지를 용서하노라고 주님께 아뢰었다.

2주정도 후에 만난 그녀는 어떻게 그 아버지를 대해야 할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나누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 6:1-3).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 아버

난 후, 하나님은 그녀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 대신 순종함으로써 아버지를 공경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의 관심은 이제 분노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회복에 있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향한 좋은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싶다면 의식을 바꾸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방법이었지만 그녀는 그

에 대한 격한 감정을 가질 여지가 없어졌다. 성령님께서 그녀가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해주었다.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 반영

당신은 계속 반복되는 고통스러웠던 생각으로 괴로워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간혹 사람들은 그런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다 접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격한 감정을 느낀다면, 사람이나 사건으로 야기된 모든 감정을 완전히 극복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성경읽기를 시작하라. 주님은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당신을 치유하실 것이다.

yonghui.mcdonald@gmail.com

## 계속 반복되는 고통스러웠던 생각, 성경읽기로 치유 용서하려면 회개하고 치유된 입으로 시인하고 존경

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분노를 오래도록 간직해온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게 하신 거라 믿어요. 자, 이제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지의 엄격함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노와 괴로움을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고,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

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비로소 이 성경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는 아버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해외동포에게 마스크 전달운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 7월 3일 1차 3만장 전달식을 가졌다.

## 세기총, 해외동포에 마스크 1차 3만장 전달식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마스크 10만장 및 손소독제와 방역복 등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7월 3일 정오, 세기총 회의실에서 1차 3만장의 마스크전달식을 가졌다.

이 마스크는 세기총 후원이사이며 국내 유일한 친환경 폐차장 "동강 그린모터스" 최호

대표이사께서 후원했으며, 다만,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몽골, 볼리비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콜롬비아, 태국, 필리핀 등의 나라 15개 도시에 각 2000매씩 전달하게 된다.

이날 전달식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진행으로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와 동강그린모터스 최호대표이사의 인사말과 증정식,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본부 황의춘 본부장의 마스크보내기 운동의 설명과 후원요청, 해외지부를 대표해서 콜롬비아 김선훈 선교사가 감사의 인사와 황의춘 본부장, 조일래 대표회장, 최호 대표이사가 콜롬비아 김선훈 선교사, 인도네시아 안태룡 선교사, 미얀마 김균배 선교사에게 각각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750만 해외동포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오늘 3만매를 전달하지만 7월중에 7만매를 더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기총 마스크보내기 운동본부 황의춘 본부장은 “우선 10만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함께 하면 더 큰 결과도 가능하다”며 마스크 보내기 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세기총의 2차 전달식은 7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으며 황의춘 본부장은 1만장, 대외협력위원장 오영환 교수 1만장의 후원 등 약5만장을 계획하고 있다.

동참문의는 이메일(sk0245@hanmail.net)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세기총)

###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 감사로 새 출발을

2020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복병,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극복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말씀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새 출발해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잊고 새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잘한 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잘못된 것만 기억하면 실망합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랑해도 붙잡을 수 없는 과거입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어제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오늘이 있습니다.

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첫날이요, 내일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의 날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더욱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의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부대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요 나처럼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개월 후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감사로 새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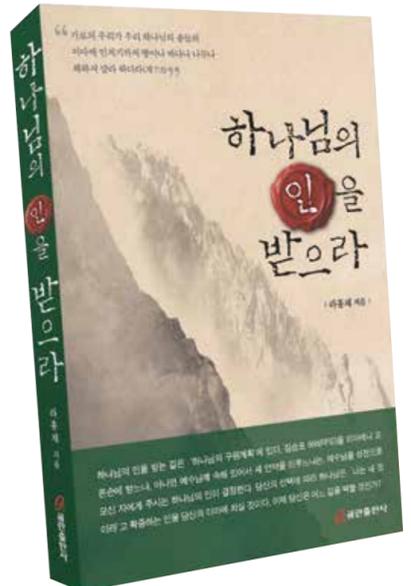
bible66@gmail.com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바디매오의 믿음(막10:46-52) 찬343장

불쌍한 저지 신분의 바디매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이 뜨여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47). 그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소리치며 부른 것은 그 분에게 자신을 던지는 헌신행위였습니다. 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48).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주

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험을 참고 그 분을 만나려는 열심은 참 믿음의 성격입니다(히11:1). 셋째,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51). 주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기탄없이 눈뜨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메시아예언 속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희년에 맹인이 눈뜨는 기적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시대에 이 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 화 바울의 문인(딤후1:1-2) 찬450장

오늘부터 디도서에 나온 바울의 목회지침을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바울 개인의 말보다 사도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첫째, 그는 자신의 사도 신분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말합니다. 그의 모든 지침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성부의 사도는 성자의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회심한 그는

구원과 동시에 사도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약속으로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것 곧,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도는 복음적 목회지침을 디도 목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시대의 교회에 참된 목회지침이 필요합니다.

### 수 바울의 전도(딤후1:3-4) 찬270장

사도의 궁극적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3). 누구든지 듣고 믿지만 하면 의를 얻고 임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은 지상명령의 제일순위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이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 후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둘째, 주

님이 사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3). 교회의 모든 지침은 전도를 겨냥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납니다(4). 사도의 문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절정인 임마누엘의 상태 곧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리킵니다.

### 목 디도 목회의 목적(딤후1:5-6) 찬179장

디도목사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목표 중 하나가 신실한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견고케 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세례 받은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 증표인 세례는 성령세례를 기본으로 물세례를 통해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은 의식만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간구입니다(벧전3:21). 둘째, 교회는 성도의 새 성품으로 세워집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성품인 의, 인, 신(엡4:23-24)을 나타내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룹시다.

### 금 디도 목회의 목적(딤후1:5-6) 찬378장

계속 기도는 장로의 자격조항을 구체적으로 말함으로 신실한 장로를 세우도록 권합니다. 첫째,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영적 도덕적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격적 결함은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도는 그 기준을 먼저 주장합니다. 교회의 왕적인 장로는 무엇보다 의와 기록을 중시하여 그 자신이 그 일에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둘

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인격은 가정생활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정부터 경건한 식구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삶의 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고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우리 시대에 우리 목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실한 가정을 이룹시다.

### 토 감독의 자격(딤후1:7) 찬453장

여기 감독은 치리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권한을 가진 한 교회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청지기는 5가지 소극적 요소를 가집니다. 첫째,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인의 뜻에 자기의 뜻은 굴복해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급한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

고 말하고 분냄을 더디게 하라고 하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과 방탕의 도구가 되는 술에 취함보다 성령의 술 취함이 목회에 필요합니다. 넷째, 구타하지 말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정욕에서 나온 행동을 금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신실합시다.

## 코로나와 온라인예배



김항안 목사  
(한국교회 정보센터 대표)

## -전혀 새로운 예배 환경에서(중)

예배의 대 혼란이 오다

영상예배 컨셉의 발전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가 세계를 덮쳤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매우 쉬운 것이었다. 국가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교회 역시 물리적 거리두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초기에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킨 신천지는 모임장소가 폐쇄되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지방자치 정부 중에는 교회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었고, 벌금을 매긴다는 압박을 가하는 곳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들은 반발하며 현장예배를 고집하기도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현장예배만이 옳다는 의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장예배를 드리지 않는 의견도 맞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예배를 잠시 멈추자는 의견도 맞다. 문제

20세기 말에 교회에 영상예배가 도입되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달과 기계와 전자기술의 발전을 교회마다 영상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초창기에는 예배를 안내하는 PPT를 빔프로젝트로 스크린에 비추어 신자들에게 예배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대형 교회는 화면에 설교자를 비추므로 설교자를 더 자세히 잘 볼 수 있게 하였다. 교회는 방송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술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예배를 보다 더 잘 중계할 수 있었다.

단순한 영상을 보여주던 교회는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의 사역과 활동을 소개할 때 영상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방송국에서만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었던 어느 새 UCC(User Create Content)로 각광받던 개인 영상물은 누구나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출시되었다. 그런데 어느 새 UCC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재능 있는 사역자들에게 의해 교회의 목적에 맞게 잘 짜여진 영상물이 제작되어 신자

## 바이러스 창궐 왜 생겼는지 신앙적 이유 찾는 일조차 버거워 온라인예배 찬반 속 온라인조차 운영할 수 없는 교회도 존재

는 온라인조차도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데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가짜뉴스에 속아서 소금물을 입에 뿌리는 일로 감염이 더 확산되고, 교회와 목사는 무지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교회들을 현장예배 보다는 온라인예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회자들은 예배중계방법을 배우서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TV,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중계하며 가정에 모인 신자들에게 예배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예배를 고집하는 쪽에서는 압박하는 지방 정부와 정부를 비난하는 곳도 있다. 한 발 물러서서 현장예배를 드리되, 철저하게 소독하고, 예배 참석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적고, 신자들 사이에는 거리를 두며 소규모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한 교회들도 많았다. 지방정부들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교회들을 돌아보며 계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실 공무원도 교회도 못할 일이다. 바이러스의 창궐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한 혼란을 가져 왔다.

들에게 감동을 주고, 목회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영상물은 대부분 녹화서비스를 하거나 짧은 영상물 제작에 불과하였다. 제작된 영상물들은 거의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재생하여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예배가 어려워지자 작은 교회들까지 각종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기에 이르렀다. 목회자 혼자서도 가능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미 유튜브를 활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젊은이들의 유튜브 활용도가 높았으므로 교회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예배를 중계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다. 예배를 드리는 맛이 나지 않기도 하고, 교회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았다. 노인들의 경우 컴퓨터나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색하기만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있고, 교회 신자들이 축소되고 헌금이 줄어드는 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갑자기 닥친 혼란을 극복하느라 바쁜 와중이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 창궐이 왜 생겼는지 신앙적 이유를 찾는 일조차 버거웠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선교 편지

## 마다가스카르

7월 7일에 보내드리는 마다가스카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조치가 취해진 지 4개월째, 가난한 나라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상황으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자 3주전 정부도 할 수 없이 조치를 완화, 조금 자유로운 옛 모습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부터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한 확진자는 금요일에는 200여명이 넘으면서 어제 월요일에는 309명의 확진자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으로 인해 정부는 지난주일 긴급 각료회의를 통해 완화되었던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어제부터 또다시 오전에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긴급 구호식량을 나눠오면서, 3주째 한인 선교사님의 유치원에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오병이어 선교회(위드) 사역으로 유치원 사역을 준비해 오신 한인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 3월 말 중단했다가 3주전 완화된 조치로 인해 다시 시작해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어제 이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까지면 다 끝낼 수 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식량 나눔은 그동안 약 2,2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쌀과 식용유, 설탕과 저희 조이플 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마스크 5,000매와 숯, 일부 지역엔 모기장과 말라리아 약까지, 이렇게 준비해 나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토요일에 채석장의 가정들에게 다시 구호 식량을 나누려는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650여 가정에게 이미 나누었지만 그 양식이 이제 다동이 닳아 터라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정들이 못받는 모습을 보았기에 다시 새롭게 조사한 명단을 받았



는데 총 1,100여 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가정들이 그 채석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명단을 보내온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한 최종 숫자가 이렇게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조치가 내려져 이 나눔을 한 두주 연기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나눔을 해왔고 다시금 이 채석장의 가정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나눔은 우리 대학사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적용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요즘 발생하는 마다가스카르의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봉제공장에

서 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제 방에서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강순신 선교사 드림  
sshinkang@hanmail.net

###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 12. 가정의 질서회복

한국이 70-8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힘입어, 드디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 2만불이 넘는 신형 선진국으로 G10에도 당당하게 가입했습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보급률이 세계 1위이고, 선박건조, 제철조강생산량 등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자살률, 청소년 흡연율, 저출산율, 술소비량 등이 세계 1위이고, 이혼율은 세계 2위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했지만 성적, 도덕적으로는 많이 타락하여 가정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집(House)은 있지

는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나라 1위”라는 불명예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젊은이들의 혼전동거와 계약결혼, 연상녀와 연하남, 유부녀와 총각, 형부와 처제, 겸사돈간의 결혼, 그리고 당당한 이혼과 부끄럼 없는 재혼풍조 등 최근에는 결혼거부(비혼)와 무자녀 저출산, 그리고 동성혼(Same Sex Marriage)까지 큰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혼인제도에 대한 생각도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심각한 파괴현상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70대 노부부가 싸우다가 부

속 심화되어 순간적인 판단과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족의 틀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륜과 패륜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족부재, 가족해체, 가족파괴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한국에는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다. 경노사상도 없고, 행복한 부부관계도 없고, 천륜의 부모 자식관계도 없다는 서글픈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정을 두고 말함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족은 저들과 분명하게 달라야 하며, ‘그리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님이 호주되 성경이 가훈(家訓)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 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만 가정(Home)은 없다고 합니다. 하숙생활 하듯이 계약결혼에 의한 동거생활을 하듯이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가정은 천국(Heaven)이 아니라 지옥(Hell)입니다. 가정(Home)도 없고 가족(Family)도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처럼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한 나라도 드뭅니다. 가정과 가족의 급변은 가히 놀랄 정도입니다.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금과옥조(金科玉條)였었고, “한번 결혼하면 겹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였는데, 이제는 이혼률 세계 1위를 넘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하여 경로사상 하나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났었

인이 죽자 남편은 스카프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 엄마가 갓난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 생활고를 비판해 아이들을 독살한 뒤 자신도 자살한 사건, 부모의 유산이 탐이 나 아버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교수 아들, 나이 든 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효도관광을 빙자하여 제주도나 동남아 관광지에 갖다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패륜(悖倫)과 효도상실 등 가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부관계와 부모자식간의 천륜을 쉽게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실랄한 모습입니다.

어떤 불화가 있어도 화해하고 인고(忍苦)하며, 가족의 형태를 유지했던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는 모습 대신 서로의 반목과 질시가 더

스도인의 이상적 가정상’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가정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미상(未詳)입니다. “가정(家庭)-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님이 호주되고 성경이 가훈(家訓)되어 아빠는 말씀 보고 엄마는 기도하며, 자녀는 찬송하고, 형제는 전도하며, 약속된 축복 받고 본이 되게 하소서.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에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서”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기독교 가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팬더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 (1) 'Vision 800 Global' 대표 이준성 목사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교류가 중단되고 곳곳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6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세계 속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미주에 있는 선교단체와 공회단체들을 통해 그 상황을 알아보기로 하고 첫 번째로 'Vision 800 Global'(대표 이준성 목사)의 사역과 함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 1998년 멕시코에 800교회 세우기로 시작, 2019년 'Vision 800 Global' 로 확장

'Vision 800 Global'의 초석은 'Vision 800'

Vision 800 Global의 초석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멕시코에 800여개의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목적을 갖고 'Vision 800'이란 이름을 걸고 초교파 선교운동으로 시작했다. 비전800을 통해 멕시코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내적치유, 청년집회, 큐티, 일대일 그리고 단기선교 등으로 지역과 교회에 필요한 맞춤형 사역과 가정사역 회복운동이 시작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클리닉 및 목회자 현장교육을 통해 목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보게 하셨다.

과 함께 중남미를 향해, 또한 그들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Vision 800 Global을 통해 라틴아메리카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학교'를 통해 교육하고 있고, 선교사 훈련학교 열매로 북미와 남미 대륙의 라티노 졸업생들을 열방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됐다.

2019년 제1회 선교사훈련학

회랑 청소년 소년재단 등이다.

코로나시대...중남미 모든 국가 국경봉쇄

그러나 심히 안타까운 것은 '비전 800 글로벌'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돼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됐다. 미국과 멕시코의 육로가 막히고 중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국경봉쇄를 선언한지 벌써 4개월. 이제 조금씩 국경들을 열어가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스 전염으로 힘들어했던 유럽이 이제 안정돼가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멕시코와 중남미는 이제 전염의 피크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멕시코와 중남미는 더더욱 힘들어짐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하루에 3불20센트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1억명의 극빈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는 폭우로 15만명의 난민이 생겼으며 멕시코에는 또 다른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코로나시대로 교회들과 선교현장은 불가피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닌 왕성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시대는 교회와 선교가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보는 의견도 있다는 것.

'비전 800 글로벌'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취소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마스크 사역이다.

이준성 목사는 "미국에는 5천500만명이나 되는 라티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와 중남미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들이 두고 떠난 고국을 그리워하며 선교현장은 불가피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닌 왕성



이준성 목사



선교사훈련학교를 마치고 기념촬영

### 라티노교회 영성회복 '비전800네트워크' 선교사 훈련학교 '비전800스쿨' 선교사 파송사역 '비전800인터내셔널'

교 졸업생들은 2020년 이슬람 국가의 북을화해 위해 세네갈, 터키, 키르기스스탄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마지막 중심사역은 '비전 800 인터내셔널'. 이것은 선교사 파송사역으로 라티노 선교사를 열방으로 라티노 및 한인교회와 단체들과 동역하는 사역이다. 현재 함께 협력하는 여러 교회와 한국교회 및 선교단체(KWMA, JDM), 라티노 선교협회 및 단체(PMI, OM, COMIBAM, COMIMEX, Comunidad Esperanza) 그리고 미국 선교협회 COMHINA 및

한 전파력과 확진자의 치명성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모든 관행을 정지시켰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을 놓고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한국세계선교협회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교사 10명중 8명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후원금이 줄고, 사역이 전 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들려준다.

이 목사는 작금의 현상에 관해 "2020년 6월 2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9백50만명이 확진되고, 미국이 약2백50만명의 확진자와 12만5천명의 사망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끝으로 그는 이일에 함께 협력하는 여러 교회와 한국교회 및 선교단체 KWMA, JDM, 라티노 선교협회 및 단체(OM, COMIBAM, COMIMEX) 그리고 미국 선교협회 COMHINA 및 화랑청소년소년재단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많은 기도

와 후원을 거듭 당부했다. 본 선교단체에 관한 문의는 총무 강인호 선교사(213-272-8602)에게 하면 되고 www.vision800global.org에서 자세한 사역을 볼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새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성자 기자)

### CGNTV 개국 15주년 기념 시청수기 공모전

8월 28일까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개국 15주년을 맞아 CGNTV가 시청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남녀 노소 누구나 CGNTV 시청자라면 CGNTV 콘텐츠를 시청을 통해 느낀 감사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응모작 가운데 2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대상)을 비롯한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접수마감 후 선정 과정을

거쳐 9월 4일 CGNTV 웹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 별도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특히 이번 시청수기 공모전에는 글뿐만 아니라 영상 형식의 수기도 접수한다. 글 수기는 한글, 워드로 작성된 파일 또는 구글 설문으로 작성된 웹 문서 A4용지 1-2장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필 작성도 가능하다. 영상 수기는 2분에서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촬영한 영상이어야 하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 해당 영상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출된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응모 가능하다.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유행남 선교사는 "CGNTV를 통해 곳곳에

서 영적 콘텐츠를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CGNTV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CGNTV 시청자의 참여를 격려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유행남 선교사는 지난해 시청수기 공모전을 통해 CGNTV와 함께 사역이 확장된 사

역을 나누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시청수기는 오는 8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의 경우에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CGNTV)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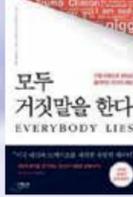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b>추천 도서</b>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탠튼, 매드워킹 데어스	침묵 앤드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b>후원</b>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b>도서구입처</b>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